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왕초
보편 하나-

법천우

소개글

명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전달 과 사주팔자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위하여...

목차

1	명리학 과 사주팔자	6
2	인간은 홀로 있으되, 홀로 존재 할 수 없다	7
3	인간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8
4	인간의 운로는 정해져있다	9
5	인간의 운로는 질적으로 수정불가능이지만,량적으로 가감된다.	10
6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11
7	명리학에 들어가기전	12
8	삼원이란	14
9	음양 이란?	15
10	오행이란?	16
11	천간이란?	17
12	지지 란?	18
13	지장간이란?	19
14	육십갑자	20
15	사주팔자 란?	21
16	운 이란?	22
17	오행의 생극관계	23
18	합과 화 란?	24
19	충이란?	25
20	합과 충에 대한 편견?	26
21	삼합 이란?	27
22	방합 이란?	28
23	암합 이란?	29
24	유통 이란?	30
25	커피 타임	31

26	왕,상,휴,수,사 란?	33
27	공 과 성 이란?	34
28	성 이란?	35
29	십성 이란?	36
30	십성의 기본활용	37
31	용신 이란?	38
32	용신 찾는법	39
33	생명의 은인 아가씨와 청년에게	40
34	역부법 이란?	41
35	통상적 강약 판단 기본형	42
36	조후법, 병약법,통관법 기타	43
37	산하석 지수 강약 판단법	44
38	희,용,기,구,한 이란?	46
39	실전 입문에 들어가기 전에	47
40	실전준비작업	48
41	사주기등세우기<년주 와 월주>	49
42	사주기등세우기-일주,시주-	50
43	사주기등 적는 법	52
44	명리학의 실용범위	53
45	명리학의 취급범위	54
46	대운 나열하기	55
47	대운 적는법	57
48	대운의 입운 나이 계산하기	58
49	세운의 기준	60
50	대운 과 세운 의 관계	61

51	대운의 감정 기간에 대하여	63
52	통변 이란?	64
53	알아두면 유용한 통변사항	65
54	자기 그릇의 크기	67
55	커피 타임	69

명리학 과 사주팔자

명리학이 무엇이며,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알듯 하면서도 뚜렷하게 이것이다라고 표현할수 없는 단어들이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것인지? 결혼을 해야하는데 궁합이 맞는것인지? 길흉화복은 어떠한지? 앞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코자 이용하는 점술, 혹세무민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등쳐먹은 미신 등등등, 이를 표현하는 수사들은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앞일을 알자는데 있다. 앞일을 알아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다는 마음과 그저 재미삼아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못들은 것으로 치부해버리자는 심리 등등 이를 접하고 있는 태도도 사람의 얼굴이 각각이듯 제 각각 따로따로인 것이 현실이다.

일기예보가 각자의 실생활에 필요하듯, 자동차에 장치되었는 도로정보 알리미가 운전에도움을 주듯. 바로 앞의 일만 알아도 우리들은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만끽한다. 하물며 자기 앞날의 운로를 알수 있다면 이보다 자기의 삶을 여유롭게 살수는 있지 않을까? 나는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감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만용스럽게 블러그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명리학이란 과연 소수의 몇사람만이 갖는 전유물인지 아니면 누구라도 자기인생을 자기삶대로 운영해 갈수있는 실용학문인지를 말하고자 한다.

모든 학문이 전제나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해 나아간다. 명리학도 전제나 가설이 필요하지만, 시중에 나와있는 명리학 저서나 역서에 아직은 보지 못했다. 나름대로 사람의 운명을 논하는 학문이라 그 범위를 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명리학을 접하면서 최소한 같이 공감대를 이룰수 있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째, 인간은 홀로 있으되,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둘째, 인간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셋째, 인간의 운로는 정해져 있다.

넷째, 인간의 운로는 질적으로는 수정불가능이나, 량적으로는 가감된다.

다섯째,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인간은 홀로 있으되, 홀로 존재 할 수 없다.

사람은 각자의 삶을 자기대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남의 삶을 살아줄수도 없고, 나의 삶을 남에게 맡길 수도 없기에 나의 삶은 나로 시작하고 나로 끝나기 마련이다. 이것이 인간은 홀로 있을수 있다는 뜻이고, 나의 삶과 똑같은 인생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홀로 존재할수 없다것이 앞뒤가 맞지않은 말 같지만, 삶의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혈연이던 지연이던 학연이던간에 다른 삶의 주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음을 말한다.

나를 중심으로 상하좌우전후 선을 그렸다고 가정하고, 위으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아래는 나의 자식, 왼쪽으로는 형제 ,오른쪽은 친구, 앞에는 선배, 뒤에는 후배가 연결된다. 물론 도식상으로 설명의 편의상 정한 것이니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 각선의 주체들도 자기들 삶의 주인공임은 당연하다.

따라서,서로 연결된 삶의 주체들간에 영향을 상호간에 주고 받는다는 현상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즉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 삶을 영위한다는 그 자체가 나와 연결된 다른 주체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 영향을 받고 있다는 관계에서 바로 명리학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운이 좋다고 하는 것, 운이 나쁘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기인되고 야기된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이러한 전제에서 즉 나를 정확하게 알아으로써 다른 주체들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기에 , 인간은 홀로 있으되, 홀로 존재 할 수 없다는 전제를 인식하여야 한다.

인간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여러 종교나 학문 등을 통하여 이미 알고있는 것이지만, 나는 우리의 조상이 남기신 전통적 문헌 속에서 암시되어있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천부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그 주석도 아주 난해해 상당히 어려운 분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을 묘사함에 있어 참으로 심오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이를 소개하는 것이니, 어느 분의 설인가 하는 점은 일단 접어두기를 바란다.

하늘은 원이요 구이고. 땅은 사각형이고 정육면체, 그리고 인간은 삼각형 정사면체라는 설이다. 글자나 문자가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표현하는 기호로서는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 즉 우주을 원 즉 구형으로 보고 땅은 원안에 있는 즉 구형에 내접하는 정육면체(주사위)로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을 묘사하게 되는데 이는 아주 의미있는 발상으로 정육면체의 각꼭지점에서 각면에 대응하는 반대쪽 꼭지점으로 선을 그으면 정사면체 즉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를 인간으로 표현한 것인데 오늘 내가 강조하고픈 대목이다.

이 정사면체가 한변을 중심으로 역으로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된다. 중심을 정확하게 잡는다면 들림없이 부동으로 자리잡을수 있겠지만, 어느 한쪽으로던 기울게 되어있다. 이는 사람이 불안정할수 밖에 없다는 목시가 아닐까? 이러한 점은 여기서 논할 주제는 아니지만, 명리학에서 용신을 찾아내는 방법론중 역부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있다고 감히 소개하는 것이다.

인간의 운로는 정해져있다.

인간의 운로는 정해져있다. 인간은 모두다 자기노력만 하고 인내하면 흔히 책에서 볼수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한번쯤은 다시 해보았을 테마이다.나도 그러 했슴을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결국은 내가 무슨 방법상이나 진행상 실수나 잘못을 했슴인데 인정할만한 것은 찾지못했다.다른 사람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억지로 같은 뜻을 하는 동지나 친구를 구하자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세상은 조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모두가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된다면 그것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 될 지경이 아니면 현실적이던 논리상으로 도저히 납득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리학에서 제일 기초적으로 수용해야될 명제가 음양과 오행설인데, 그중에서도 음양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과 국민 그리고 재벌과 거지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수용하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재벌이 되면 좋고 거지가 되면 나쁘다 라고 선입관을 가진다면 명리학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재벌이던 거지이던 그것은 그 것 자체로 의미가 있음을 알고 , 인간의 운로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명제에 서로간의 공감대를 가질수 없다면 명리학 즉 운명을 연구하는데 잠시 쉬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권하는 바이다.

인간의 세상은 조화다. 인간이 살면서 철정을 반복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 각자의 운로에 맞추어 사는 것이지, 하고 싶다고 하여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재벌로 살 팔자가 거지로 살고 싶다고 과연 될까? 거지로 살 팔자가 과연 재벌로 살고 싶다고 과연 될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기왕이면 기 죽지않고 품을 잡으면서 살고는 싶지, 육신 멀쩡한 상태에서 기 죽고 그냥 손가락질 받은 상태에서 굳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원초적인 갈등에 처해있는 우리네 삶에 명리학은 그 답을 주고 있다.

소크라테스 도 "니 자신을 알라!" 고 하였고 ,공자님도 나이 오십에 지천명이라 하셨다.

흔히. 지천명이면 불원천이요, 지기자면 불원인 이라 하는데 , 핵심은 나를 알게 해준다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명리학을 두드려야 함이다.

인간의 운로는 질적으로 수정불가능하지만,량적으로 가감된다.

각자의 운로가 정해져있다면 어차피 당하던지 겪어야할 사항이라면, 굳히 앞일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일까? 행이던 불행이던 어쩔수 없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연출되는 삶이라면 속편하게, 아는 것이 병이라고 그냥 무심하게 담담하게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련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천도는 무위지도라 ,그저 무심하게 운행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어느 누구를 위하여 천지의 기운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주의 섭리에 따라 운행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그 시점에 그 기간에 각자의 운명에 좋은 작용을 하던지 ,나쁜 영향을 주던지 하는 것은 순전히 각자의 운로에 의한 것이니,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다.

다만, 인간이 할수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으니, 바로 자기자신을 조절함으로써 행 과 불행, 여의 와 불여의 의 상황을 모나지않게 부드럽게 삶을 영위할수 있다. 즉 행이나 여의 기간이라면 거만이란 자만에 빠지지 않으면서 불행이나 불여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고, 불행이나 불여의 기간이라면 절망이나 좌절치 않으면서 행이나 여의기간을 대비해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는것. 이것이 중심을 잡는 일ियो. 바로 중용이 아니겠는가? 어느 한쪽이던 너무 기울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아갈수있는 것은 아마도 인간에게 부여된 능력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힘든 능력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대인들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조차 망각하거나 자기와는 상관없는 고리타분한 한자책에서 나오는 것으로 치부하고마는 경향이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자신을 모르는 데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많은 선현들이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함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명리학은 즉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에는 무엇보다 자기자신을 알게함으로 그가치가 돋보이는 실용학문인것이다. 그 시기 기간을 지혜롭게 자기자신을 조절함으로 행이던 불행이던 악운이던 호운이던 삶의 량을 가감할수 있다.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인간이 모태에서 이 세상과 인연을 맺을때,누구나 빈손과 알몸으로 나오기에 인간은 출발에 있어 똑같은 처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과연 그럴까? 우선은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하늘과 땅으로 부터 숙명적으로 각인되는 사주가 다르다. 그렇다면 동시에 태어났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어떠할까?흔히들 일관성 쌍둥이를 가정하는데, 사주명리상 그들은 당연히 같은 운로를 살것이라고 감정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그러한가? 아니다.그러면 사주명리학이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당연지사이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람이 각자가 처해있는 여건과 환경을 똑같이 해서는 살수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를수 밖에 없으나, 쌍둥이 일 경우 각자가 살아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일치함은 우리네 주변에서 확인 할수 있으니, 한 예로 운로가 기신 운으로 불여의한 기간에서 쌍둥이 형은 직장에서 퇴직당하여 실업자가 되고, 동생은 풍을 맞아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 등

이야기가 빗나간 감이 있으나, 쌍둥이도 같은 운로를 가지만 결코 똑같은 삶을 영위할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본건으로 들어가고자한다.인간은 어떤 것이던 뜻을세우고 초지일관하여 노력하고 인내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있을까? 특히 현대사회의 획일적이고 몰인간적인 교육에 길들여져있는 현대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성공인이 되던가 아니면 실패자요 패배자로서 자기를 상실하고, 자기의 한판 인생을 그대로 자기를 상실한 채 끝을 맺어야 하는가? 어쩌면 그것도 운명이고 숙명이라 할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러하지는 않다.

그 이유는 모르고 겪어야하는 삶의 운로를 결코 운명이요 숙명이라 논할수 없기때문이다. 알고 겪는 것과 모르고 겪는 것의 차이는 백지한장이지만, 그 격차는 하늘과 땅 만큼이라면

인간은 각자가 존재이유가 있고,서로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이 세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결코 평등할수 없으니, 각자가 각자의 그릇이 있는 것이며, 그 그릇에 담겨질 내용물도 다르고 시간에 따라 채워지는 량도 가득채워질때도 완전 빈그릇일때도 있듯이 항상 변하는 것이다.

그릇도 토기에서 금그릇까지, 크기도 가지가지, 담을 것도 가지가지 어쩌면 인간의 수 만큼 다양하리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과연 나는 어떤 그릇이며, 어떤 크기 인지, 그리고 현재 무엇이 얼마큼 담어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담을수 있는지 아니면 바닥이 들어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알아보는 것은 지혜이다. 인간이 평등하다면 결코 이 세상 같지는 아니될 것이다.그러나 우리네 삶은 우주의 모습 본질이니 결코 평등할수 없는 것이다.공평하지 않다는 것도 우주의 본질 중에 하나일 뿐이다.

간다한들 갈수 있으며
온다한들 올수 있는가?

된다한들 될수 있으며
안된다한들 안될수 있는가?

막는다한들 막아지며
보낸다한들 보내지는가?

모든 것이 나의 욕심이니
부끄럼없이 최선을 다하고

하늘과 땅의 뜻과 의지에 맡길 뿐

어찌
하늘이 무심하고
땅이 무정타 하리오.

병술년 무술월 산하석 올림

명리학에 들어가기전

(1)

명리학에 들어가기전에 서로의 근본적인 공감대를 가졌다고 가정하고 명리학에 접해보자. 명리학은 생활이며 과학이다. 현재의 과학적 논리로 설명이 안된다면 현대인들이 명리학에 대해 곡해하거나 오해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과학도가 아닌 입장에서 체계적인 논리구사는 어렵겠지만, 단편적으로 주위들은 상식들을 인용해서 설명한다보니 설명 잘못된 대입이나 인용 그리고 침소봉대한 표현이 있더라도 그 뜻을 가련하게 생각하여 그냥 넘어가 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반박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이다. 보다 좋은 설명이 있다면 가르침을 받겠다.

명리학의 공부는 수학공부하는 분위기와 흡사하다. 실생활에서 특수분야에 속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미분적분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가감산 그리고 곱하기 나눗기 정도만 해도 전혀 생활에 지장이 없듯이 ,명리학도 가감산 곱셈 나눗셈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명리학으로 생업으로 삼아야할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다.

왜 수학공부하는 것과 같은가? 우선은 그 분위기를 말하고자 함인데, 각 단원 단원 배울때는 성적이 오르지 않지만 ,

꾸준하게 한 권의 과정을 마스터한 후, 다시 한 번 보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일취월장하는데, 명리학의 분위기가 그러하다는 뜻이다.

(2)

어떻게 명리학을 부담없이 이해시키고 접근할 것인지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연재하기로 하였다. 제일 먼저 명리학에서 사용되는 기본용어들을 되도록 간단하게 소개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자문화권에서 생긴 학문이기엔 한자용어가 필수적이니, 이 연재의 목적이 명리학을 생활화 하고, 명리학을 빙자하여 사기나 기만하려는 가련한 인간들에게 당하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 상식을 알리고자 함이니, 순 한글로 표기하지만 그래도 명리학인데 중요기본어는 한자를 인용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명리학 실전에 들어가서는 나의 사주를 놓고 한겁 한겁 해부함으로써, 실전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최종적으로 실전에 대한 연구를 통변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마무리는 명리학을 배우고자하는 목적과 의의를 다시금 상기하면서, 과연 이 험한 세상을 각자가 어떻게 처세하고 처신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마도 최소한 6개월정도 단편 에세이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래부터 게으르고 글쓰는 재주가 없는지라, 그저 나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표현하고자 한것이니, 같이 동행하면서 많은 지적과 가르침을 바라면서 시작한다.

삼원

세 개의 근원이다. 하늘 땅 그리고 인간을 이르는 것이다. 명리학이란 이 삼원의 조화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입장에서 각자 개인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해보자는 것이다.

삼원을 표현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에 설명해드린 것을 상기하면서, 정사면체가 갖는 꼭지점은 네 개이고, 각 꼭지점은 정육면체와 구 그리고 정사면체의 접점임을 이야기 했다. 즉 꼭지점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한곳에 모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하늘을 천간으로, 땅을 지지로, 인간을 지장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삼원이 갖고있는 성분과 동향 그리고 변화를 논리적으로 추리 예측함으로써, 지금을 알고 앞날에 대비하는 지혜를 갖 자고 하는 것이다.

현대에 살고있는 우리네들은 하늘과 땅의 의미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자연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 자기라는 성분만이 즉 인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땅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네 삶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삼원은 하늘 땅 인간을 이르고 ,명리학에서는 이를 천간 지지 지장간으로 표현하고, 삼원이 서로 어울림으로써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음양이란?

낮 과 밤, 해 와 달. 낮에서 밤이되고 밤에서 낮이 되는 과정 ,즉 변화의 근원을 의미하는 동시에, 절대론적인 인식 관이 아니라 상대론적인 인식을 말하는 것이며, 변화라는 기본패턴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인생은 무상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을 터인데, 바로 무상이 변화이다. 변화한다는 것은 즉 살아있음을 의미 하기도 하다.

물질을 한없이 쪼개다보면 원자가 나온다고 한다. 원자를 들여다보면 음전하와 양전하가 있어 균형을 유지하지만 궁 극적으로는 많고 적음에 따라 음전기이던 양전기이던 전극을 띄게 된다고 한다.

물론 순수한 음과 양은 이론상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로 섞여 있으며, 어느 한쪽이 비율이 많음으로써 음과 양이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음의 성격과 기질이 있다던지, 양의 성격과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음에도 양음이 있고 음 음 있으며, 양에도 양양 그리고 양음이 있는 것이다. 즉 절대적인 개념의 음양이 이론상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이 론상이고 만물은 음양이 혼합되어 존재하면서, 그들의 혼합비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바란다.

사실, 동양사상과 철학의 기본골격인 음양론은 그 뜻이 심오하여, 그 깊이를 가늠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명리에서는 변화의 기본이 된다고 이해되기에 이렇게만 설명한다. 각자가 나름대로 사 색과 궁리를 통하여 나름대로 터득하고 이해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행이란?

다섯가지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즉 변화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표현한 것이다.

성장하고 커 나아가는 모습, 옆으로 퍼지면서 위로 치솟는 모습, 인간의 손이 가는데로 순응하는 모습, 변화가 없는 모습, 아래로 향하는 모습. 이러한 다섯가지 변화의 움직임을 많은 인간들에게 이해시키고 전달하기 위해, 이것을 상징할수 있는 물상을 찾다보니,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목(나무)로
옆으로 퍼지면 위로만 향하는 모습은 화(불)로
순응하는 모습은 토(땅)으로
변하지 않을 모습은 금(쇠)로
아래로만 움직이고 모습을 수(물)로 인용표현 한것이다.

목,화,토,금,수 달력에서 많이 본 글자들이다. 여담이지만 일,월,화,수,목,금,토, 음양과 오행을 적어놓은 것이다. 명리학은 우리와 동 떨어진 학문이 아니다.

모든 변화의 움직임을 나무,불,흙,쇠,물로 표시한것이니, 단어가 풍기는 그 의미에 공부를 해야지 ,단어 자체에 고정관념을 갖지 말기를 부탁한다.

오행은 음양과 더불어 동양 철학의 기본 골격인 셈인데, 음양이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면, 오행은 그 변화에 대한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음양오행론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되었다면, 이미 공부는 99퍼센트 마스터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향후 많은 시간을 투자할 부분이다.

천간이란

명리학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하였다. 그중 하늘의 변화를 오행으로 표시한 것을 천간이라한다.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10개 이며, 갑을을 목,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를 의미한다. 전회에서 설명하였듯이 각 오행은 음양으로 구분하여

갑은 양목, 을은 음목

병은 양화, 정은 음화

무는 양토, 기는 음토

경은 양금, 신은 음금

임은 양수, 계은 음수 라 한다.

천간은 기의 성질, 쉽게 이해하자면 오행의 변화가 기체라고 생각 하자.

물론 양의 천간 오행은 기이기라고 하고 , 음간의 천간 오행은 기의 세라고 한다는 정도로만 암기해주기를 바란다.

기세가 높더라던가, 기분이 좋다 할 때, 그러한 기라고 느껴주기를 바란다. 보통 구체적이고 형상적이지는 않지만, 분명 우리가 느낄수 있는 그런 질감이다. 바람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지만 태풍이 불면 집이 날라가지 않는가?

천간은 그러한 '기세'라고 하는 특성이 있음을 이해하고, 순서대로 그리고 한자로 암기 해주기 바란다.

지지 란?

하늘을 천간이라 표현하였듯이, 땅도 표현 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지라고 한다.

이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어렵게 생각하지말고 1년의 사계절이 순환되는 것에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무슨 띠라고 말하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돼지)의 순이다.12개 그래서 12지지라고도 한다.

천간이 '기'라면 지지는 '체' 즉 고체라고 이해하자. 따라서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이며,체감으로 직접 느낄수 있는 부분이다.

좀더 이해를 돕기위해 사계절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봄 여름 겨울 가을 순으로 인묘진, 사오미, 신유금, 해자축 을 이룬다.

오행상 인묘는 목, 사오는 화, 신유는 금, 해자는 수 이므로, 각기 오행에서 계절의 느낌이 오시는지?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은 많은 개인적인 생각과 사유가 필요한 항목이다. 문제는 토인데 토 (진,미,술,해) 가 4개나 있어,천간처럼 10개면 족할것을 굳이 토를 4개로 2개를 더 만들어 12개로 표현했을까? 명리학은 생활이다. 즉 계절 과 계절 사이의 환절기를 표현한 것이다. 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표현인가?

오행상 음양으로 구분 하면

인은 양목, 묘는 음목 - 사는 양화, 오는 음화 - 신은 양금, 유는 음금-해는 양수,자는 음수,그리고 축과미는 음토, 진과 술은 양토로 구분한다.

마음이 내키지는 않겠지만 순서적으로 한자로 꼭 암기바란다.

지장간이란?

이제까지 삼원중 하늘 과 땅을 표현하였고, 나머지인 인간을 표현하는 것을 배울 차례이다. 나도 지장간이라는 단어를 처음접하면서 이게 명리학인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도 다소 생소한 부분일 것이다.

글자 그대로 지지에 숨어있는 하늘이라는 말인데, 참으로 오묘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다. 일단 소개부터 하겠다.

- 자=임계
- 축=계신기
- 인=무병갑
- 묘=갑을
- 진=을계무
- 사=무경병
- 오=병기정
- 미=정을기
- 신=기무임경
- 유=경신
- 술=신정무
- 해=무갑임

각각의 지지에 천간의 성분이 서로다른 비율로 섞여있는데, 이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각각의 지지는 이 지장간에 의해서 그 특성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지지의 주된 특성은 지장간의 순서에 맨 끝에 있는 천간의 오행으로 압축 되어있으며, 축에서 인으로만 제외하고, 다음 지지의 지장간 처음으로 위치하는 것을 눈치가 있는 사람은 파악했을 것이다. 잘 의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천간은 기와세라고 하였다. 즉 이러한 천간으로 표현되는 인간을 다른 생명체에 구분하는 의미도 있어, 기와세 즉 정신이고 생각을 할수있는 포유동물임을 알수 있는 것이다.

명리학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을수 있는 부분이므로 시간나는대로 암기하고,향후 여러 변화 속에 이들이 서로 작용하는 것이 보일정도면 명리학에 입문하였다 하여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지장간은 시중에 나와있는 만세력이나 책력에 , 또는 인터넷 상에 검색 하며 좋은 자료가 많으므로 보충하여 주시기 바란다. 지장간이란 인간을 표현한다 점만 우선은 암기 바란다.

육십갑자(육갑)

육갑? 육갑하네라는 말 시중에서 쓰는 의미로 비하된 느낌이 오는데,여러분들도 그런 감이 올것이다. 육십갑자 즉 천간과 지지가 어울려 만들어 낼 수 있는 조합이 60개라는 뜻이다.

흔히 61세 되는 해에 환갑잔치를 하는데, 바로 갑자가 다시 돌아 왔다는 것을 기념하는 잔치인 것이다.

천간과 지지가 만나는데. 천간 10개,지지 12개가 순차적으로 순환되어 만드는 조합인 것이다.천간의 갑자와 지지의 자자가 어울려 시작되어, 갑자, 을축, 병인, 정묘.....계해로 끝나고, 다시 갑자가 되는 것이다.

이 육십갑자를 기본적으로 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프로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단지 순서상 처음에 갑자로 시작해서 계해로 끝이 나는 순환적 조합이라고 이해하면된다.

이러한 육십갑자가 천간과 지지의 만남이라해서 무조건 만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기 바란다.

갑축은 없다.을자도 없다. 엄연한 규칙과 법칙이 있음을 나중 연재에 설명하겠다.

유전학에서 설명되는 DNA의 구조는 아데닌(A) 티민(T) 구아닌(G) 시토신(C)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성분이 마구잡이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A는 T와 G는 C하고만 연결된다는 점이 과연 우연의 이치일까?

여러분이 육십갑자를 공부하면서 비교하여본다면 각자가 느끼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주팔자

이제야 사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우선 글자대로 4개의 기둥과 여덟글자라는 이야기인데, 어렵게 생각하지말고 생년생월생일생시를 옛날식으로 적어놓은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4개의 기둥이니, 생년을 년주(기둥주), 생월을 월주, 생일을 일주, 생시를 시주가 있다는 것이고, 각 기둥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육십갑자를 찾아 적어보면, 각각의 기둥에 천간과 지지가 있으니 이것이 여덟자가 되는 것이다.

명리학에서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년주, 월주, 일주, 시주의 순으로 적는데, 이는 한자식 표기에 따른 관례이지만 지금도 이를 따르고 있다.

각 주에는 육십갑자에서 논했던 글자들을 찾아 적게 되는데, 보통 만세력이나 책력을 이용하여 찾아서 쓴다. 물론 사주기둥을 세우는 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 태양력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낯설기도하고 생소하겠지만 나중에 쉽게 이해가도록 설명하겠다.

각기둥에서 천간과 지지가 차지하는 자리에 따른 고유명칭이 있다.이것은 외워두기 바란다.

년주에 천간자리는 년간, 지지자리는 년지

월주에 천간자리는 월간 지지자리는 월지

일주에 천간자리는 일간 지지자리는 일지

시주에 천간자리는 시간 지지자리는 시지 라고 한다.간단하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사주기둥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명을 분석하고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는 면에서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것이 된다. 왕왕 현실에서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거나, 생년월일은 정확한데 생시가 부정확할 경우, 사주감정이 180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어찌 되었던 사주 즉 네기둥이 똑바로 서야만 쓸데없는 일에 열올리고, 맞네 틀리네하는 시비수에 걸리지 않는다는것만 명심하기바란다. 특히 유명인들의 사주를 공부삼아 풀어보기도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믿지 말기 바란다. 사주기둥 세우는 법은 나중에 설명하겠다.

운이란?

그 사람 참 운이 좋다. 저 사람 정말 운이 없군? 하면서 쓰는 단어이다.

운이란 무엇일까? 운이란 그저 변화일 뿐이다. 그 변화가 자기에게 좋게 작용 했다면 행운이란 뜻이요, 될 일인데 어떤 변화로 아니 되었다면 악운이라 할 것이다.

모든 생물은 어느 체계이던 평형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하는데, 즉 죽게 된다면 필요 없는 상황이지만, 그 에너지는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넓은 뜻으로 보면 하늘과 땅의 영향-자기 의지와는 별개의 보이지 않은 힘, 변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운을 명리학에서는 감정기간 단위별로 대운, 세운, 월운, 일진 등으로 표현하며, 대운은 기간단위가 10년이고, 세운은 1년, 월운은 1달, 일진을 하루를 기준으로 감정한다.

명리학에서는 대운과 세운을 중점적으로 논한다. 그 이유는 ,인생의 모든 현재는 선택의결과가 아니라 인과의 법칙에 따라 정해진다는 이치에 따르기에는 월과 일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물론 순간적인 결정과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보통사람들이 같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치를 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설명드릴 운 감정은 대운과 세운 위주로 논하겠다.

오행의 생극관계

오행을 설명하면서 그 대표적 상징물을 목, 화, 토, 금, 수 라고 하였다. 사주원국에 부딪치는 외부의 자극은 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투입되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도 다양한 모습을 띄게 마련이다. 이러한 다양한 반응의 모습을 명리학에서는 네가지로 분류한다. 한개의 오행 주체가 갖는 기본적인 방향은 2가지로 생의 관계 와 극의 관계인데, 생이란 주체를 중심으로 힘을 주고 받는 관계이고, 극이란 힘을 뺏고 뺏기는 관계를 라고 암기 바란다. 이것이 명리학의 전부이다.

목, 화, 토, 금, 수-순서적으로 생을 해주는 관계이다. <목>에서 (화)를, <화>에서 (토)를, <토>에서 (금)을, <금>에서 (수)를, <수>에서 (목)을, 즉 < >에서 ()을 생을 해주는 입장이다. ()입장에서 보면 < >의 생을 받는 입장이다. 주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 그 구분을 정확히 해야한다.

그러면, 힘을 뺏고 뺏기는 즉, 제어하는 관계를 극이라 한다고 하였다. 목화토금수에서 한 단계씩 건너뛰는 오행이 극을하는 관계이다. <목>은 (토)을, <화>는 (금)을, <토>는 (수)를, <금>은 (목)을, <수>는 (화)를 극하는 관계이다. < >오행이 ()를 제어를 하는 관계이지만, ()입장에서는 < >의 극을 제어를 당하는 입장이다. 주의하기 바란다.

모든 변화의 형태는 크게 생극이며, 이러한 생극이 능동적이나 수동적이나에 따라 4가지로 정리된다. 물론 같은 오행끼리는 같은 관계이므로 힘이 배가 된다고 보아, 추후에 설명되겠지만, 왕 하다고 한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면 된다.

합과 화란?

1.합

합이니 화이니 명리학 냄새가 풍기는 듯하다. 겁 먹지말자. 그저 생극관계에서 좀더 유별난 관계라고 보면 된다. 다음 연재에 충도 설명되겠지만, 문제는 생하는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극하는 관계에서 무엇인가 파생되는 것이다.

합이란 묶인다고 먼저 이해하기를 바란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다음에 설명할 충이나 합이나 극하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극을 받던지 극을 하던지, 극의 강도가 심해 다른 것으로 변하던 아니면 두 오행 중에서 극을 당하는 입장의 오행이 제거 되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이른다.

일단은 천간에서 벌어지는 합충이 있을 수 있고, 지지에서 일어나는 합충이 있을 수 있으나,여러분들은 천간에서는 합만 있고,지지에서는 충만 있다고 이해하기를 바란다. 물론 지지쪽에서 일어나는 삼합,방합,육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설명하기로 하겠다.

하늘 즉 천간을 기라고 했다. 쉽게 이해하면 기체라고 볼수 있다했는데, 이러한 기는 그 움직임이나 반응이 고체나 액체와는 틀리다. 천간의 합 예를 들면 갑(목) 과 기(토)에서 목이 토를 극하는 입장이지만, 갑목은 양목이고 기토는 음토이다. 극을 하되 음양이 틀리다. 따라서 두 오행이 만나면 일단은 합이 된다. 자석의 다른극이 서로 만난 것 처럼 붙는다.묶인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맺고있는 오행은 다섯가지 뿐이다, 외워야 한다.

갑기 합, 을경 합, 병신 합, 정임 합, 무계 합, 극을 하는 오행은 전부다 양이고, 극을 당하는 오행은 음이다. 이 같은 오행이 원국에서는 같이 붙어있을 때 작용하고, 운에서 올 때는 그 오행을 찾아 작용한다고 암기 바란다.

2.화

화는 천간에서 벌어지는 합이 다른 오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상황이다.포도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며 와인이라는 술로 변하는 것이다. 모든 포도가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여건이지만, 무조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온도 습도 기타 첨가물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맛있는 포도주가 되듯이,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천간에서 작용하는 합의 관계라면 화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마련이다. 이 조건이란 작용하는 천간 바로 밑에 지지와의 관계를 말한다. 이 점을 확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곡해가 생기는 부분이다. 주의하기 바란다.

지금은 무조건 암기바란다.

갑기합에서 갑의 뿌리가 약하고 근의 뿌리가 있을 때, 그러면 화토 토라는 포도주가 된다.

을경합에서 을의 뿌리가 약하고 경의 뿌리가 있을 때, 그러면 화금 금

병신합에서 병신의 뿌리가 양쪽다 약할때, 화수 수

정임합에서 정의 뿌리가 있고 임의 뿌리가 약할 때 화목 목

무계합에서 무의 뿌리가 있고 계의 뿌리가 약할 때 화화 화 로 포도주가 이루어진다.

뿌리라는 것은 천간에 해당하는 오행 밑에 지지가 같은 오행이거나 지지의 오행이 천간을 생을 해주는 관계를 말한다.

총이란?

주체의 오행이 다른 오행과 갖은 역학관계에서, 힘을 뺏고 뺏기는 관계. 즉 극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 극을 당하는 오행의 작용을 완전히 제어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지,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싸움이라고 하고, 충돌한다고 한다. 즉 고체끼리의 부담침이다. 구체적이고 즉물적인 지지에서 일어나는 극으로, 보다 피부적으로 체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총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어느 한 쪽이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총이라해서 무조건으로 극을 당하는 쪽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주원국의 상황에 따라서 극을 하는 오행이 거의 다 KO승 이지만, 무승부도 있고, 역으로 KO패의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리학은 재미있다.

자오 총, 인신 총, 묘유 총, 사해 총, 축미 총, 진술 총 -여섯가지이다.

천간에서는 서로 극하는 성분이되, 음양이 달리하는 것을 합이라했고, 지지에서는 서로 극하는 성분이되, 음양이 같은 것을 총이라하는 것이다.

자석에서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지만,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낸다. 아니 운을 다루는 학문에서 이런 이치가 있다는 것 참으로 묘하다.

천간은 다른 극끼리 서로 당겨 합치는 것이고, 지지는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려 함으로써 총이 되는데, 총을 바쁘다, 활동적이다라고도 통변하는 것이다.

합 과 충에 대하여

보통 사람들은 합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충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힌다. 아마도 공합을 보는 측면에서 합과 충이 많이 거론되는데, 그것의 영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공합에서 “합이면 좋고, 충이면 나쁘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공합도 명리학의 한 부분이다. 단지 공합부문에서만 사용하는 국한된 판단이고, 명리학 전체의 넓은 뜻에서, 합이나 충은 사주원국-자기의 사주팔자-에 따라 그 변화를 따져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인지를 감정하고 난 후에 정할 사항인 것이다.

예를 들어, 나에게 부담을 주는 오행을 충해서 힘을 못쓰게 한다면 그보다 더 반가울 수가 없는 것이고, 나에게 정말 요긴하게 도움을 주는 오행을 충해서 힘을 뺏어간다면 이런 철천지 원수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것이다. 합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된다.

충해서 나쁘고 합이 돼서 좋다고 한다면, 객관적이던 논리적이던 그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어야하지, 무조건 합이니 충이니 거론하면서 여러분들을 공포심을 조장하여, 자기들 의도대로 이끌고 가려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은 길은 논리적이던 객관적이던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명리학의 상식만 갖추고 있다면 언제든 그러한 위험을 피할수 있을 것이다.

삼합 이란?

삼합하니 갑자기 술안주가 떠오른다. 지지에서 글자 세 개가 모여 합을 이룬다는 말이다.

합이나 층은 두 글자 사이의 이야기지만, 삼합은 세 글자 사이의 이야기이다. 벌써 감이 오지않은가? 삼각관계이다. 조금은 복잡할듯 한데 , 이 자리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곳이니, 나중에 깊이있게 다루겠다.

일단은 삼합은 동서남북 방위적 개념이 강한 분위기이다. 천간에서는 합화라고하여 을경합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오행으로 변화되었지만, 삼합은 자, 오, 묘, 유 ,즉 자-수, 오-화, 묘-목, 유-금 을 중심으로 두 글자가 모여 합이 되면서, 두 글자의 오행이 중심인 오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강화되는 것으로 이것을 ‘국’ 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신자진-수 국, 해묘미-목 국, 인오술-화 국, 사유축-금 국

삼합에서 가운데 위치한 지지를 사정이라고 하며, 각 각의 사정을 중심으로 서로 이웃하고 있어야만 성립되고, 한자라도 떨어져 있다면 합이 안된다. 물론 운에서 작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지만, 원국에서 적용할 때 기준이다. 흔히 사정을 중심으로 한 개의 지지가 이웃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반국’ 이라고 말하며 삼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좀더 부연하면 , 지지는 사계절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것을 상기하면서 신자진을 기준으로, 신은 가을의 시작인데, 그 지장간을 보면 무임경이다. 가운데가 임수이다. 진은 봄의 끝인데 , 그지장간을 보면 을계무. 가운데가 계수이다. 다른 삼합도 그러한 구조로 되어있음을, 각자가 이제는 확인할 정도는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라는 겨울 기운이 가을이 시작되면서 그 씨앗이 생기기 시작해서 해자축 겨울기간을 지나 , 겨울 기운이 봄의 끝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겨울 기운의 일생이다. 참으로 의미있는 암시이다. 씨앗인 임수는 양이다 .양은 기라고 했다. 모양은 없지만 기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마무리인 계수는 음이다, 음은 세라고 했다. 무엇인가 남기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지장간의 의미가 명리학의 진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참으로 명리학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닌 ,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이라는 확신을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느꼈다. 그저 이상한 말이나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한문을 써가면서 아는 체하는 그런 것이 아닌,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나름대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생활학문이라는 것이다.

운이 여의로워,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로 만사가 척척 진행되며, 이 세상이 모두 자기 것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이미 불여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바로 삼합이라는 대목에서 알려주는 것인데, 즉 자만 거만 떨지말고 겸손하게 지내라는 지혜의 가르침이다. 반대로 운이 불여하여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안되서, 실의와 좌절을 안주삼아 강소주로 마음을 달래는 사람에게는 이미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알려주고, 용기와 힘을 내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울 것을 준비하라는 지혜의 가르침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글썄 나는 이보다 멋진 암시와 표현을 접해보지 못했다. 정말 멋있고 슬기로운 선조들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인간을 표시하는 지장간의 의미는 참으로 인간적이라, 피부에 와 닿는 감촉이 틀리다.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면서 단순한 팔자타령이나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명리학 속에 흐르는 참신한 이치를 맘껏 즐기시기를 바란다. 느꼈야 한다. 그래야 상상이 되고, 그림이 보이는 것이다. 사유하고 또 궁리하면 할수록 더 크게 느낀다.

방합 이란?

삼합이 사정에 대한, 즉 사계절 기운의 시작과 끝 관계라면, 방합은 글자대로 방위의 합이다. 방위라는 것이 동 서 남 북 이듯이 해 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다. 여러분들이 알고있는 12지지의 순서인데, 이것을 4 계절로 구분한 것이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계절의 기운 과 계절을 구분하여 이해하여 주기를 바란다. 지금은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해자축은 수 요 겨울이다. 북쪽을 의미한다. 춥다
인묘진은 목이요 봄이다. 동쪽을 의미한다. 따뜻하다.
사오미는 화 요 여름이다. 남쪽을 의미한다. 덥다.
신유술은 금이요 가을이다. 서쪽을 의미한다. 서늘하다.

방합은 순서상의 문제는 없으나, 세글자가 서로 연결 이웃 하여야 함은 삼합과 동일하다.

사실, 끝의 토만 변하는 것으로 결속력이 강한 것으로 감정한다. 나중에 설명할 용신 찾는 법에서 소개하겠지만, 조후법 또는 한의 학 쪽에서 많이 이용되는 의미가 있다. 수가 많으면 몸이 냉하다. 화가 많으면 몸이 열이 많다 라는 표현이다. 그냥 단순히 글자대로 자축인묘.... 보다는 각각의 지지 오행이 계절의 의미도 있고, 방위도 나타내면서, 덥다 차다 습하다 건조하다 라는 뜻도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바란다.

암합 이란?

어두운 숨어있는 합이란 이야기인데, 합도 여러 가지다. 드러내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은 성질인가 보다. 암합은 하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지금은 일주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암기바란다. 다른 기등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차후에 연구할 과제이고 지금은 일주의 천간 즉 일간과 일지의 지장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합만 적용한다.

천간에서 천간끼리의 발생하였던 합이 천간과 지장간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화 까지는 생각하지 말라. 그저 공개하기에는 꺼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알기 바란다.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된다.

유통 이란?

사주원국을 감정할 때, 사주의 그릇(?) 즉 등급을 정할 때 검토되는 사항으로 중요한 용어이다.

합이나 충이 극의 관계되는 용어라면 ,유통은 생의 관계되는 용어이다. 천간과 지지의 구분없이 , 또한 시작되는 자리에 관계없이 서로 이웃하는 오행끼리 도미노처럼 계속 이어지면서 생을 해주는 것을 이른다. 최소한 연이어서 네 개 이상 오행이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을 흐름이 좋다고 표현하는데, 유통이 원활하면 등급관련해서 높게 평가 할수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알기 바란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러한 흐름이 좋으면 , 자기 사주에 부담이 되는 운이 와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통이 되는 것이다. 즉 막힘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주원국에는 오행이 끌고루 갖추어져 있는 것이 무난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느 재벌의 총수 사주의 유통이 좋았다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연주형이니 하는 말은 구슬처럼 연이어져 있다는 유통의 용어이다.

커피 타임

커피 한 잔을 마시자. 이 연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다. 사실 나도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정리가 안 된 상태라 정리하면서 연재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글을 쓰지도 못했다. 지금쯤 호기심이 있는 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양해를 바란다.

어찌보면 뒤죽박죽 이것이 저것같고, 저것이 이것같은,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귀에 익숙한 용어들에 대한 개념들, 처음 접하는 사람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놓고 계속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다시금 핵심만 정리하겠다. 커피나 마시지... ..

명리학은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이라는 점과 이들의 역학관계에서, 즉 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변화를 오행이 일으키며, 그 변화는 생과 극이라는 현상이라는 점. 그리고 생과 극이 주체를 중심으로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가 가감산 수준이다. 명리학이 어느 전문인들만 위한 학문이었다면 과연 명리학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가 있었을까? 생각해본다. 마침 무슨 비법이나 있는 것처럼하여 괜스레 사람 겁주고 기를 죽이고 있는데, 아니다. 모든 사람이 조그만 관심만 가지며 알도록 되어있고, 그 얇은 각자의 자기 삶에 빠가 되고 살이 되는 활용할 수 있는 후생학문 생활학문이다. 물론 철저한 이기주의 성격이 강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인연된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이기주의(에고이즘) 이다.

다음 부분은 이러한 변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즉 통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하겠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다.

왕,상,휴,수,사 란?

오행의 생극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이기는 한데, 왕상휴수사란 주체가 되는 오행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말자. 상황을 알고자 하는 오행을 중심으로 다른 오행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뿐이다.

예를 들자면 목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오행이 서로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 목 과 목의 관계를 '왕하다' (같은 오행)
- 목 과 수의 관계를 '상하다' (생을 받는 관계)
- 목 과 화의 관계를 '휴하다' (생을 주는 관계)
- 목 과 토의 관계를 '수하다' (극을 하는 관계)
- 목 과 금의 관계를 '사하다' (극을 받는 관계) 라고 표현한다.

목이라는 주체입장에서 힘이 약해지는 순서라고 보면 된다. 즉 '왕하다' 하면 힘이 강하다는 상황이고, '사하다' 하면 목의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궁 과 성 이란?

궁이란 자리 터이고, 성이란 별이라는 뜻이다. 궁은 고정되어있고 성은 유동적인 느낌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집을 보자, 안방 거실 부엌 화장실이 따로 있어 그 쓰임새를 달리하고 있다. 그런 개념이다. 궁이란 사주원국의 천간 지지의 위치에 따라 그 의미와 뜻을 설정해 놓는 것으로 , 예부터 사주감정 시 많이 사용하였던 흔적이다. 요즘은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신빙성이 결여 되기 때문인데, 그러나 사주를 감정 할 때 참고하면 많은 도움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소개하자면 최근에 응용하는 것으로 년간을 아버지, 년지를 어머니, 월간은 표현력, 월지는 남자는 사회활동, 여자는 남편, 일간은 자기자리, 일지는 남자는 아내, 여자는 자기 몸, 시간은 종교, 시지는 자식자리로 보고 ,제각각 위치상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통변하는데, 정설이라기 보다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다만, 일간이 자기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은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일간을 일원이라고 따로 부르는 것이다.

성이란 별이다. 밤하늘을 살펴보면 별의 위치가 일정치 아니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별의 위치도 보는 사람의 환경과 위치에 따라 달리 보이듯이, 이러한 별의 위치는 개인 자신 만이 갖는다는 측면에서, 따로 미리 정해논 자리가 아니라 가변적이라는 점을 궁과 구분하기를 바란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십성이라하여 열 개의 별이름을 정해놓았다. 다음 회에 설명한다.

자기 자신 즉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일곱 개의 별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라고 이해 바란다.

성 이란?

별 성자이니, 별을 이룬다 하겠다. 사실 서양의 점성술과 동양의 사주 부분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는 나중에 거론하겠다.

각론하고 명리학에서는 다섯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분류하는 기준은 왕, 상, 휴, 수, 사 에서 거론된 것과 동일하다. 공부를 하면서 감이 오겠지만 기준은 생극이다. 이것을 용도에 따라 각기 이름을 붙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성이란 통변에 사용한다하여 십성 또는 통변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같은 오행이며-왕- 비겁, 생을 받는다면 -상- 인성, 생을 주는 것면 -휴-식상, 극을 하는 입장이면 -수- 재성, 극을 받는 상황이면-사-관성 이라고 하는 것이다.

잠시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점이 있다. 혼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왕상휴수사는 사주원국상 어느 간지이던 주체로 놓고 표현할수있는 용어이지만, 지금 설명하는 성-십성이된다-은 사주원국상 자기자신을 주체로 놓고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 하여야 한다.

즉, 일간을 주체로 해서 나머지 간지들 일곱 개 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럼, 이 다섯가지로 분류된 비겁,인성,식상,재성,관성은 다시 일간의 음양 과 나머지 간지의 음양에 따라 각기 2가지로 분류되어, 10개의 별 즉 십성이 되는 것이다. 이 십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 회에 하겠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지금은 개념부터 잡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나도 글을 올릴 때마다 하나씩 올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내용이 단순하다는 점에서 그냥 무심히 넘기지 말고, 시간을 잠시 내어 외울 것은 외우고 , 이해할 것은 이해하면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권하는 바이다.

십성 이란?

전회에서 설명했던 것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주체가 되는 오행-여기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이 맘때 쯤이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잡혀야 한다. 만약에 아직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바란다.

자기자신을 사주팔자 궁에서 일간을 자기자리라 하고, 일원이라고도 칭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자기자리의 오행을 중심으로 나머지 일곱 개 간지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라는 기본 분류는 전회에서 설명 드린바 있다. 기본 다섯 분류는 오행의 생극 관계이고, 오늘 설명할 십성은 기본 다섯 분류를 음양으로 각기 세분화 시킨다는 것이다.

부연하지만 음양 자체가 키워드가 아니라, 관계하는 간지의 오행이 일간과 음양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가 구분하는 키포인트임을 주의하기 바란다.

예를 들자면, 일간이 갑이라면 목인데 양목이다.

여기에서, 비겁일 경우, 해당되는 간지의 음양을 구분해서 같은 극일 때-양목-, 이를 '비견' 이라하고, 다른 극일 때-음목-, 이를 '겁재' 라고 한다.

인성일 경우, 같은 극이면-양수- '편인', 다른 극이면-음수- '정인'

식상일 경우, 같은 극이면-양화- '식신', 다른 극이면-음화- '상관'

재성일 경우, 같은 극이면-양토- '편재', 다른 극이면-음토- '정재'

관성일 경우, 같은 극이면-양금- '편관', 다른 극이면-음금- '정관' 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열 개 즉 십성이 되는 것이다. 노파심에서 다시 말하지만 주체가 양목이기에 설명된 관계이지, 만약에 주체가 음목이면 반대로 설정된다는 것을 이해 바란다.

십성의 기본 활용

*주체(일간)와 같은 오행이면서, 주체와 같은 극일때 비견이라하고, 다른 극일때 겁재라 한다.

- 비견은 자기자신, 형제자매, 친구, 동업자, 자주심, 자존심, 독립심, 주체성으로 통변하고,
- 겁재는 자기자신, 형제자매, 친구, 라이벌, 경쟁심, 도박 투기심, 재물밝힘으로 통변한다.

*주체를 생해주는 오행이면서, 주체와 같은 극일때 편인, 다른 극일때 정인 이라 한다.

- 편인은 외가, 이모, 후원자, 고독, 신비, 복고풍, 임기응변, 눈치 로 통변하고,
- 정인은 어머니, 이모, 외가, 후원자, 희생, 인내심, 희생, 총명다지, 고전 보수적, 직관력으로 통변한다.

*주체가 생을 해주는 오행이면서 , 주체와 같은 극일때 식신, 다른 극일때 상관을 이라한다.

- 식신은 부하직원, 여자에게는 자식, 총명준수, 염치, 심미적, 연구 탐구심으로 통변하고,
- 상관은 부하직원, 여자에게는 자식, 사교적, 외교, 다예다능, 보스기질로 통변한다.

*주체가 극을 하는 오행이면서, 주체와 같은 극일때 편재, 다른 극일때 정재 라 한다.

- 편재는 여자, 아버지, 문제해결능력, 유희, 공간활용, 이동, 재물로 통변하고
- 정재는 부인, 아버지, 현실적, 치밀함, 정직, 소유, 재물, 결과로 통변한다.

*주체를 극하는 오행이면서, 주체와 같은 극일때 편관, 다른 극일때 정관이라 한다.

- 편관은 남자에게는 자식, 여자에게는 남자, 상사, 기억력, 카리스마, 조금, 위험, 관공서로 통변하고
- 정관은 남자에게는 자식, 여자에게는 남편, 관공서, 이지적, 합리적, 책임감, 계획성, 고지식, 직장으로 통변한다.

오늘 이야기하는 십성은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명리학에서 통변을 할 시, 필수 해독기(암호 해독기?)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통변하는데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각 성이 갖는 의미가 압축적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재성-편재 나 정재>의 변화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재성은 재물, 아버지, 여성, 등등을 의미하는데, 어떤 부분을 적용시켜 통변을 해야 하는지? 설령 여자 때문에 변화가 있겠다는 감정을 했다면, 부인인지, 숨겨논 애인인지, 아니면 길가다 눈이 마주친 묘령의 여인인지 사실 정확하게 짚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족집게는 명리학과 거리가 먼 이야기 이다. 지금은 일단 소개만 하기로 하고, 보다 심층적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다.

용신 이란?

용신!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을 떠 올리게 한다. 그래서인가 어디 민속무속을 하는 집 안방 정면에 걸려있는 그림이 상기 되면서 용왕님을 연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상이다.

아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용’ 자는 쓸 용자이다. 사용한다고 할 때 용자인 것이다. 쓰임새가 있다는 뜻인데, ‘신’ 자가 마음에 걸린다. 무슨 신 무슨 신하면 마치 종교적인 분위기가 풍기기 때문인데, 전혀 그런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 명리학은 학문이지 종교는 아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격물치지 라, 자연을 관찰하고 지혜를 얻는 공부이지 절대로 믿음과는 관련이 없다.

처음에 나도 기분이 묘하였지만, 돌이켜 보건데 , ‘신’ 이라는 글자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강함을 알수있는데, 명리학에서는 쓸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뜻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뜻이므로 오해 없기를 바란다.

희신, 한신, 구신, 기신 이라는 것을 앞으로 설명할 터인데,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내가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많은 가르침을 준 분이 있는데, 솔직히 직접 사사 받은 입장이 아니고 ,그 분의 저서를 갖고 공부한 입장이라, 함부로 존함을 거론 못함을 양해 바란다. 그 분은 용신을 막대저울의 손잡이로 표현 하셨는데, 참으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한다. 즉 균형이 잡혀야 무게를 측정 할 수 있는 것처럼, 각자의 사주원국에서 제일 쓰임이 큰 오행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자.

명리학의 첫 번째 관문이자 , 일차 목표인 셈이다. 사주원국에서 용신을 찾아야 , 드디어 사주팔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용신을 찾지 못하거나, 찾았다고 한들 잘못 찾았으면, 말짱 헛것이다. 즉, 용신인 글자-용신인 오행을 찾아야 , 사주의 문을 들어서면서 모든 궁금증이 도미노처럼 풀어지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관문이다. 다음 회에는 이 용신을 찾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용신 찾는 법

명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관문인 용신을 찾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무조건 사주원국에서 여덟자 중 일간을 제외한 일곱자 에서 찾아야 하고, 거기에 없다면 지장간을 뒤져서라도 찾아야한다.

용신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찾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찾는 방법으로는 **억부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그리고 화기격, 외격(종왕,종강,종아,종재,종관격), 일행득기격, 양신성상격 등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자. 문제는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법을 적용시켜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다.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방법 중에서 **80%~90% 이상이 억부법이라는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라.** 나도 억부법 중심으로 연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맡겨 주기를 바란다. 일일이 설명한다는 것은 머리만 복잡해진다.

지금의 나의 의도와는 별개이므로 , 관심있는 사람은 별도로 서적이거나 기타 방법으로 심도있게 연구하기 바란다.

나를 살려준 이름 모를 그 아가씨 와 청년에게 감사함을 바친다!

지난 일요일 저녁 11시경에 안양 비산대교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그 날 35년 만에 고등학교 밴드부 동문들과 만나, 옛 생각하면서 음악회 준비를 위한 첫 연습을 하였다. 기분이 뭉클했다. 다시는 연주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터라, 그 기분은 묘했다.

연습 후,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것이 화근(?)일까? 글썄, 기분이 좋았던 것은 사실인데, 솔직히 지금도 기억이 뚜렷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지금 이야기하려는 사고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안양 비산대교 바로 앞 인도에서 벌어진 일이다. 나는 약간 움푹하게 들어간 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뒷머리를 강하게 부딪칠 때,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한데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론 지금도 아무 기억이 없다. 그 다음날 아침에야 나는 정신이 들었고, 머리와 안면에 상처를 보고 사고를 느낄 수 있었다. 기가 막혔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

주위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사고 당시, 한 아가씨가 뒤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사람이 쓰러져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 다급한 터에 지나가던 청년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그 청년은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가 부르는 한편, 나의 휴대폰에 있던 나의 식구에게 연락을 취함으로써 거의 길거리에서 객사를 할 뻔한 나를 살려준 것이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 ,

나의 생명 은인 인 그 아가씨와 청년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그 사고로 연재가 며칠 공백이 생기게 된 사유다. 내가 사고 난 날이 병술년 무술월 무술일 이다.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나의 사주원국상 무토 와 술토는 '불여의' 한 오행이다. 그런 토가 다섯 개가 중복된 날이다. 조심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불행 중 다행이다.

역부법이란?

역부법이란 역대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뜻은 아니고, 강하면 약하게 하고, 약하면 강하게 보충해주는 법이라는 것이다.

아닌 밤중에 흥두깨비라고 했던가? 강한것은 무엇이고, 약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흥분하지 마시기 바란다. 건강에 해롭다. 우리가 팔자가 세다 또는 팔자가 약한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익히 들어 봤을 터이다. 바로 그 뜻이다. 우리가 아무 거부감 없이 들어왔고 사용했던 그 단어들에 바로 역부법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는 것, 이 얼마나 명리학이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럼, 팔자가 세다 라고 할 때, 사주의 여덟자의 이야기임을 짐작은 하겠는데, 막연하다. 당연하다. 이제부터 조금은 긴장을 해보자,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접어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 그리고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

일단은 자기자신을 나타내는 자리가 “일간”, 그리고 이를 일러 “일원 ‘이라고 한다고 했다. 자기자신을 중심으로, 즉 일간의 오행을 중심으로 나머지 일곱글자 의 십성을 적어놓고, 나와 같은 오행이나 나를 생 해주는 , 십성으로 비견, 겁재 그리고 편인, 정인이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강약을 구분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나? 하는 주제는 다음 회에서 연재기로 하고, 그 강약을 판단 후, 강하다면 , 강한 힘을 약하게 하는 오행을 찾고 , 약하다면 힘을 보충할 수 있는 오행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역부법이고 역부법에서 용신을 찾아내는 방법인 것이다. 간단하다. 중요한 것은 개념이다. 역부법이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일단 이해를 하면 된다.

우리의 몸이 산성이나 알카리성을 원하는 것보다는 중성을 원하지 않던가? 즉, 사주팔자도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다. 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 명리학은 역지가 아니다. 말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주원국을 살펴보니 산성이면 중성으로 가도록 할 것이고, 알카리성이어도 중성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그래야 사주원국도 건강 하겠지만... ..

사주 역부법은 “중” , 즉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상태 ‘균형’ 을 찾자는 것이다. 중용이다.

통상적 강약 판단 기본형

미안합니다. 차례가 잘못되어 다시 바로잡아 올립니다.

역부법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강약 판단법은 <비견 ,겹재 ,편인, 정인>이 사주원국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몇 개가 있는 지?가 강약 판단기준이 된다. 이를 살펴보면

구 분	월 지	일 지	세력 (기타 위치)3개이상
강 강	0	0	-
중 강	0	-	0
약 강	-	0	0
중			
강 약	-	-	0
중 약	0	-	-
약 약	-	0	-

비겁 또는 인성이 월지와 일지를 중심으로 어떤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보는 것으로 생각보다는 조금은 난해한 면이 있지만, 기본형으로 알기 바란다. 여기에서 부언하면 월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 과거의 통용 되었던 조후법의 영향이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월지는 계절을 나타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모르면 곤란하다. 처음부터 다시 정독해주시기를 바란다.

조후법 , 병약법 , 통관법, 기타 등등

오늘은 수능시험일이다. 수능시험 때는 왜 날씨가 추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동안 닦은 실력을 발휘하기를 기원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혼동만 일으킨다. 하지만 이왕에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조후법-계절을 중심으로 용신을 찾는 법이다. 지난 시절에 명리학을 주름 잡았던 왕년의 패자이다. 지금도 그 위력은 남아있지만, 세태에 어울리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 일간이 살아있는 오행인 목 일 경우 또는 덩다 촛다라는 의미에서 병 일 경우, 참고로 검토할 수 있는 법이다.

병약법-병약하니 무슨 한방 같은 느낌이 오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사주원국상 필요한 오행을 충하거나 합하던지 아니면 생극이 있어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즉 병들었는데 마침 이를 제거하는 치료하는 오행이 있다면, 약이 있다면 그것을 용신으로 쓴다는 법이다.

통관법-무역실무에서 나올 법한 용어다. 그 뜻도 비슷한다. 사주원국 상 힘있는 오행이 두 그룹이있는데, 두 그룹사이에는 서로 대립하는 상황인지라, 이를 해소하는 오행이 있다면, 즉 통하게 할 수있는 오행이 있다면 그것을 쓴다는 법이다.

간단하게 소개만 하였다. 그 용어 뜻과 의미만 정확하게 암기 바란다.

실제의 경우,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억부법으로 풀고 , 10% 정도는 조후법으로 , 다른 법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바라며,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산하석 지수 강약 판단법

이론적 배경

사주원국을 태양계라고 보는 기준에서 출발한다. 최근에 명왕성을 제외한다는 뉴우스를 보았는데,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순서가 된다.

사주 강약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방법상 판단의 기준점을 지구의 인간(생물체)이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출발하고자 하였다.

영향계수의 산출

지구의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힘을 태양계 행성에서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하였다. 그 힘의 중앙에는 태양이 있고, 그 힘을 받고 있는 범위는 태양계라고 하는 한계를 두었다. 그 중에서 지구라는 행성을 기준으로, 어떤 힘들을 행성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그 힘은 물리적인 거리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태양이야 기본이니 열외로 하고, 달을 포함한 다른 행성들과의 역학관계 중,

지구와 다른 태양계 행성 간의 상대적 거리를 주요변수로 보고 거리에 반비례하여 힘은 약하게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여 보았다.

	수성	금성	지구	달	화성	목성	토성
태양과거리(만km)	5,800	10,000	15,000		22,800	78,000	150,000
지구와거리(만km)	9,200	5,000	0	38	7,800	63,000	135,000
영향계수	0.3	0.5	1	1.2	0.4	0.2	0.1

지구를 1이라고 가정하고, 가장 가까운 금성을 기준으로 5000만km를 기준으로 체감하였다.

물론, 이 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에 대한 수치는 비논리적이기는 하지만, 영향이 없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다만 달에 대한 견해는 지구상의 인간 즉 생물체에 대한 영향이므로, 아래와 같은 설을 바탕으로 높은 수치를 주고자 했다.

지구상의 생물 탄생 설에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달의 탄생과 아울러 지구와 달의 인력, 즉 원시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끊임없는 반복 속에 생명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설에 비중을 두고자 하여, 달의 힘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사주명식 대입

일단은 영향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사주명식에 태양계 행성의 배열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 1, 일간은 일원이라하여 기본이니 태양계의 기본인 태양으로 간주하고
2. 월지는 달이라하여 이미 달로 간주하고 있으며
3. 지구는 태양과 달사이에 있으면서 태양의 영향을 직접 받고 달과 이웃하니, 일지로 간주하였고
4. 수성은 태양에 제일 가까운 행성이면서 지구에서는 세 번째로 먼 행성이니 시간이 적합하겠고.
- 5 금성은 태양에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이면서 지구에서는 첫 번째 행성이니 월간이 적합하다 하였다.
6. 화성은 태양에서 네 번째 행성이면서 지구에서는 두 번째 이니 시지로 하였고
7. 목성은 년지로
- 8, 토성은 년간으로 정하였다.

*수성, 금성, 지구는 내행성에 속하는 행성이며 ,
 -수성과 금성과 지구 그리고 화성은 지구형 행성으로 암석질의 표면을 가지고 있고.
 -목성, 토성. 및 기타 행성은 목성형 행성으로 주로 기체 성분으로 되어있다고 함.

산하석 지수 강약판단법(인성과 비겁을 기준으로)

시간(수성:0.3) 일간(태양:일원) 월간(금성:0.5) 년간(토성:0.1)
 시지(화성:0.4) 일지(지구:1.0) 월지(달:1.2) 년지(목성:0.2)

판단요령:

1. 강약 기본기준 수치는 비겁과 인성의 합이 1.8 보다 큰 것을 강으로 판단한다.
 (1.8(강))
2. 각각 간지의 숫자는 주변의 총과 극에 따라 조정한다.
3. 토의 경우는 지장간 상황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희,용,기,구,한 이란?

용신을 찾았다면 다음 작업은 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 기준은 이외로 간단하다. 물론 변형도 있지만 그것은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희,용,기,구,한 이란 희신, 용신, 기신, 구신, 한신의 앞 글자만 모아 놓은 것이다.

이러한 희,용,기,구,한은 그 활용범위가 있다. 용신에서 용자를 쓸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쓴다는 뜻이다. 그럼 어디에 쓴다는 것인가? 바로 사회활동에 적용되는 것이다. 사회활동이 아니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해서, 삶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아무도 없는 섬이나, 산 속에서 혼자 산다면 희용기구한이 적용 되지 아니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운이 좋다 나쁘다 라는 표현보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여의' 라는 말과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여의' 라는 단어를 쓰고자 한다. 좋다 나쁘다는 너무 감각적인 면도 있지만, 운 이란 것이 좋다 나쁘다 라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다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시간 즉 때가 있고,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게 또는 더 잘 풀리는 시간, 시기가 있을 뿐이다. 운이 나쁘다하여 팬스레 기죽을 필요가 없다.

운의 흐름, 운로-운이 오는 길이라고 할까? 그 운로가 '여의' 한지, '불여의' 한지 가름하고, 판단할수있는 척도는 무엇일까? 바로 희, 용, 기, 구, 한 이다. 용신을 찾았다면 그 용신을 기준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용신을 찾았는데, 그 오행인 '목' 이라면, 용신을 힘 못쓰게 하는 것은 용신을 극하는 오행이다. '목' 을 극하는 오행은 '금' 이다. 바로 '금' 이 '기신' 이 되는 것이다. 귀신이 아니다. 피할 기자이다.

이렇게 정해진 기신을 관리하여 용신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런 임무를 띤 오행은 기신인 '금' 을 극하는 오행이다. '화' 다. 불 이다. '화' 는 '금' 을 극하므로써, 용신인 '목' 을 '금' 으로 보호해 주는 반가운 '희신' 이다.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면 해피엔딩이다. 하지만 세상사가 그리 녹녹치 않다. 기신의 입장에서 보면 '화' 가 두렵다. 이때 기신을 도와주는 오행이 있으니, 희신인 불이 제일 무서워하는 물이다. '수' 이다. 이름하여 '구신' 이다.

쌍방간 진영에 긴장이 팽팽하다. 용신 과 희신 그리고 기신 과 구신. 세상은 요지경이다. 죽이네 살리네 하고 난장판 이건만, 유유히 한가롭게 있는 오행이 있으니, '토' 가 '한신' 이다.

재미삼아 여러 비유를 하였지만, 희용기구한을 정하는 기본이치는 이러한 것이다.

이를 주체인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 순서로 정렬하면 용신, 희신, 한신, 구신, 기신-목, 화, 토, 수, 금-으로 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용신을 목으로 가정할 때 상황이다. 기본적인 개념이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꼭 이 순서대로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기본이므로 이렇게 정해진다는 것은 암기 바란다.

무조건 용신을 찾아내는 것이 첫째이고, 그다음은 위에서 말 한 순서대로 정하면 된다.

실전 입문에 들어가기 전에...

실전이다. 긴장되는 순간이다. 그동안 막연히 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여기까지 처음부터 읽어온 사람들은 사주팔자라는 것에 대해 호기심이 발동 할 때이다. 과연 사주 팔자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사주를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상한 말만 하는지 알아듣기도 어렵거니와 내심 속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은 막연히 알고 있기 때문인데, 말을 하는 사람보다도 말을 듣는 사람이 막연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나는 이 연재를 계속하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을 남을 감정할 수 있는 프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 정도의 아마추어로서 만족시키고자 연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 연재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독학이나 혹은 좋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다면 일취월장 할 수 있는 기초가 갖추어 질것이라 확신하면서 실전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명리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초용어들을 추려 추려서 그래도 이 정도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용어들에 대한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 물론 용어들에 대한 의미만 정확히 안다 해도, 명리학은 이미 반은 마스터 하는 수준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그리 깊이가 없어 심도있게 터치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그것은 향후 각자의 몫이라 생각한다.

실전이라면 무엇을 두고 실전이라 할까? 어느 명리학 사이트를 들어가면 소위, 누가 더 족집게인가? 사주 하나 올려놓고 진검승부-겨루기(?)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사주에 겁재나 상관이 가득한 사람인가 본다. 공연한 것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사주나 정확히 아는 것이 더 현명하리라 생각이 든다.

황야의 무법자가 아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부문에서, 각자가 터득하고 있는 부문이나 그 깊이에서 각양각색 백인백색이다. 조금 안다고 해서 남들 앞에 나설 일은 아니다.

그리고 명리학을 공부할 뜻이 있다면 책에 나와 있는 사주로 공부하기 마련이라 책에 적혀 있는대로 공부 할 수밖에 없는데, 이치와 원리만 이해되고 알았다면, 나의 생각은 50대 전이라면 집안의 어른의 도움을 받아 집안 어른의 사주를, 50대 후라면 자기 자신의 사주를 갖고 공부하면 아주 싱싱하고 현실감이 살아 넘치는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명리학은 생활이다.

실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과연 명리학으로 무엇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명리학은 족집게도 아니요, 무슨 무슨 도사도 아니다. 명리학은 학문으로써 보편타당하게 취급할 수 있는 범위와 부분이 있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도사나 족집게 같은 신통력이나 천리안을 갖고 싶다면 명리학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귀중한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추천하는 바이다.

실전 준비 작업

권투선수가 링에 오르기 전에 주먹봉대를 감고, 가벼운 몸 풀기를 하듯이, 실전에 앞서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시나리오를 짜보자.

우선은 사주기둥을 세우는 법을 배우고

명리학이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 해보고

그 밖에 대운계산법, 세운 기준 그리고 대운과 세운의 관계를 연계해서 보는 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굳이 실전준비라고 정한 이유는 이제부터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이고, 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 과 거짓 참 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거니와, 자기 자신의 공부에 대한 저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시동에서 기어를 넣고 출발하고자 한다.

출발하자! 과속은 금물이다.

사주기둥을 세워보자! 사주 네 기둥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자기 자신의 생년생월생일생시를 일단 양력이던 음력이던 종이에 정중하게 적어보자.

사주는 귀한 것이다. 함부로 취급 하지 말라! 가능하다면 음력으로 적어두기를 바라고, 특히 생시는 되도록 아는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적어보자.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도구가 있다. 만세력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구입하되 신뢰성 있는 것으로 구입하기 바란다.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권하라고 명시하기에는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 책장사 기분? 양해 바란다.

사주기동 세우기-년주. 월주-

만세력은 가정에 필수품이다. 그 용도는 집안의 대소사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꼭 마련하기 바란다. 명리학을 생활화 하겠다면 당연히 항상 곁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일단은 만세력을 준비하였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다.

명리학에서는 음력으로 모든 것을 감정하지만, 특히 절기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24절기(12본기 와 12중기)가 있는데 ,입춘 추분 입동 소한 등등 주변에서 많이 들어 귀에 익숙하리라 생각한다. 바로 그러한 것이 절기인데, 외울 필요는 없고, 구분이 잘 되어있는 만세력에서 찾아보면 된다. 영성하게 되어있는 만세력이 많으니 구입 할 때에는 필히 확인 바란다.

잔소리가 많았다. 그 만큼 사주기동 세우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주기동을 잘못 세우면 말짱 헛것이 된다. 기동이 잘못되면 집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지사요, 사실 어떤 신통력에 의해서 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주 여덟 자를 놓고 운을 보고, 그 변화를 보는 것인데, 사주 여덟 자가 정확치 않다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겁은 먹지 말라, 알고 나면 쉽다. 다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이다.

년주-년기동이다. 이것은 생년이다. 아주 들리기 쉬운 부분이라, 흔히들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력보다는 음력으로 적으라는 뜻인데, 년주의 기준은 입춘이다. 즉 입춘이라는 절기가 들어오는 시각이 바로 년주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올해 아기가 태어났는데 양력으로 2006년 2월 4일 08시 이고, 음력으로는 2006년 1월 7일 08시 된다. 2006년의 입춘이 들어 온 시각은 음력으로 2006년 1월 7일 08시 27분이다.

말하자면 이 아기가 입춘이 들어오기전 27분전에 태어났다고 가정하자는 이야기이다.

그럼 년주는 어떻게 될까? 소위 올해가 개띠 인데 ,이 아기의 띠는 개띠일까?

명리학에서는 입춘이 들어오는 시각이 기준이라고 했다. 입춘 전이니, 이 아기는 즉 개띠가 아니라 닭띠가 되는 것이다. 이 아기의 년주는 병술이 아니라, 을유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년주의 기준은 입춘의 들어오는 시각을 전후로 따진다는 것을 절대 실수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있는 만세력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월주-월기동이다.이것은 생월이다. 이것은 12절기 즉 본기를 기준으로 한다. 만세력에 구분되어있다. 일단은 생일을 찾아 표시해 놓고 보면, 생일이 속해있는 절기가 눈에 들어온다.

예를 들은 아기의 월주는 입춘 전 이므로 12절기상 소한에 속한다. 따라서 기축이 된다. 12절기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해당되는 월 을 생각해서 경인 이라고 한다면 사람 사주가 아니라 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절대 잊지마라. 월주는 12본기 기준이다.

사주기둥세우기-일주,시주-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처음으로 명리학을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각이다. 처음에 한꺼번에 이해하려고하면 막막해지는 기분을 나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이다.

일주-생일이다. 이것은 해당되는 날짜를 찾아보면 ,그 날짜에 해당되는 간지가 나오므로 그것을 쓰기만 하면된다. 예를 든 아기의 일주는 갑자 이다.

시주-가장 말이 많고 탈도 많은 시주이다. 생시인데, 지금은 아기가 태어나면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부인과 나 출산원에서 태어남으로 출생 시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몇 년 전만해도 몇시 쯤이다, 아니면 소죽을 끊일 때라던가, 정오 사이렌 소리가 들렸든지 매우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정치적 이유인지는 몰라도 써머 타임제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쓰는 표준시도 서울표준시 또는 동경표준시 왔다 갔다하는 등 좌우지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시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경우이다. 그 이유야 어찌하던 간에 나는 이러한 사유로 , 공부할 때 등장하는 사주에 대한 신뢰성이 약한 편이다. 그렇다면 태어난 시간을 모르는 경우에는 사주감정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않다. 그러나 그 감정자체가 반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점수로 치자면 100점 만점에 50~60점정도, 여러 편법으로 시주를 세운다는 말을 향간에서 들어 보지만 솔직히 나는 별로이다.

따라서 시주를 세운다는 것이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 기준은 간단하다.

자기가 태어난 지점에 해가 정확하게 머리 위에 있어, 그림자가 제일 짧을 때를 남중이라 하는데, 이때를 정오라 하고, 정오를 전후로 한시간씩 즉 두시간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12지지를 적용하는 것이다. 오후 1부터 오후 3시 까지는 미 시가 되고, 오후3시부터 오후 5시 까지는 신 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루 24시간을 12지지로 적용하는 것이다.

설명이 긴 이유를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그만큼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 이다.

현재 우리가 쓰는 표준시도 서울이나 대전 시가 아니라, 동경 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서울과 동경의 시차는 30 분이나 된다. 즉 남중하는 시간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만세력에는 아직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까지를 오시라고 말하고 있는 만세력이 있으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현재의 우리의 형편상 오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 분 까지 인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 중요하다.

1. 자기가 태어날 때 기준시가 서울인지 동경인지? 30분 간격이다
- 2, 여름이라면 써머타임제가 적용될때인지 아닌지? 60분 간격이다.
- 3.밤 12시 즉 자정을 기점으로 ,현재는 밤 12시 30분 기점으로 전날 과 다음 날이 달라짐으로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전날 자시- 23시 30분부터 24시 30분까지를 <야자시>, 다음 날 자시-24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를 <조자시>라고 구분되어있다. 주의하기 바란다.

보통의 만세력 부록 쪽에서 시주를 찾을 수 있도록 표가 있음으로 , 일간을 중심으로 찾아 간지를 적으면 된다. 예를 든 아기의 시주는 무진 이다.

번거롭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실제 명리학을 감정하는 사람들은 피감정인이 이야기하는 시에 맞추되, 그 전후시도 감안해서 감정하는 것이다. 그 만큼 사주 기둥세우기는 명리를 전개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정확해야 될 부분, 즉 기둥이

다.
부연해서, 사주를 고친다는 말도 들었는데,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나는 할 말이 없다. 참 허만 찰뿐이다.

사주기둥 적는 법

요즈음 세대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세대이다. 나도 그렇게 배운 세대이기는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사주적기와 대운 쓰기 등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간지를 동시에 쓸 경우 간-천간-은 위에 , 지-지지-는 바로 아래에 쓰도록 한다. 그것이 기본이다.

전화에서 예를 든 아기의 사주를 쓸 경우, 음력으로 2006년 1월 7일 08시 이다.

戊	甲	己	乙		
辰	子	丑	酉		
<	D	C	B	A	>

A-년주, B-월주, C-일주, D-시주 네 개의 기둥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천간 과 지지는 한자로 표기 바란다. 그래야 좀 품이 난다고 할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그러하지만 자꾸 써보면 자연스레 그 뜻과 의미가 들어옴으로, 권하는 바이다.

이제야 무언가 모양이 되가는 기분이다.

명리학의 실용범위

만병통치 약은 없다고 생각한다. 수 천년 묵은 산삼이면 몰라도, 두루두루 완벽하게 한 방으로 모든 것이 완치되는 만병통치는 없다. 명리학도 운을 다룬다고 해서, 세상사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명리학이 덜 연구 되어서가 아니라, '불확정성 원리는 인간의 지적능력에 주어진 한계가 아니라, 자연 자체에 원래부터 내재 되어있는 본질 때문이다' 라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어떤 양반이 설파하였듯이, 예외는 항상 존재 해왔다는데 동의하고, 또 다른 하나는 명리학이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 즉 거시적인 국면의 변화(국가, 세계, 자연재해 등등)가 아니라, 미시적인 개인의 삶에 기준을 둔 학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천리는 무위지도라, 즉 하늘의 움직임은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주 섭리대로 무심하게 운행된다는 뜻인데, 100년도 못사는 인간들이 시기와 때에 따라 생,노,병,사,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삶의 질곡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질곡 속을 헤쳐 나아가야 하는 우리네에게 명리학은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명리학이란 이름을 거창하게 내걸기에는 사실 나의 얕이 너무도 속스러워 그냥 사주풀이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덜 되겠다. 나의 경험으로는 자기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첫째로 들겠다. 나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분석된다는 것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 적은 모르겠고, 나를 내가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삶을 계획하고 분위기에 어울리게 처세함으로써, 이 거친 세태를 지혜롭게 헤쳐 나아갈 수 있는 자기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주자기경영이라고 말하고 싶다.

승리와 성취 만이 삶의 단계가 아니고, 패배와 양보도 엄연한 삶의 단계이다. 이 모두를 다 수용함으로써 미래에 뜻을 둔다면 어찌 헛살았다 할 것이며, 각자의 삶 리듬에 자기를 맞추고자 노력하면서, 자기가 갖고 태어난 각자의 자기그릇 크기에 맞게, 삶의 의미를 가득 채우는 기쁨도 만끽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자기 삶에 애착을 갖고 자기 생을 사랑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 한다.

명리학의 취급범위

명리학을 공부해서, 이를 실생활에 활용 수 있어야 한다면 명리학이 취급 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일까?

우선은 자기자신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과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첫째는 천성-타고난 성격이요

둘째는 후천성 성격-즉 살면서 형성되는 성격이다.

셋째는 이러한 성격분석을 통한 적성이다.

넷째는 자기 삶의 여정에 대해, 최대 5년 단위 와 최소 1년 단위로 '여의' 와 '불여의' 기간을 분석,판단 함으로써 자기 거취에 대하여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가능할 수 있다.

다섯째는 넷째항목을 참작하여 적성을 발휘 할 수 있는 평생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여섯째는 자기 자신의 그릇크기를 가능 할 수 있어 무리한 욕심과 야망을 자제할 수 있다.

다음은 타인과의 역학적 관계를 중심으로

일곱 번째는 이성운(궁합. 동업), 재물운, 관운, 등을

자기 삶에 대한 플랜을 자기 자신의 크기에 맞게, 멋지게 구성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운에 맞게 운영하는, 자기 삶에 대한 주체자로서 (사주자기경영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이다.

대운 나열하기

대운이다. 큰 운이라는 뜻인데, 상당히 긍정적 좋은 의미로 받아 드리려 한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다른 뜻은 없다. 그저 운의 적용 기간이 큰, 10년짜리 운이라는 의미뿐이다.

약간의 긴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순행이니 역행이니 하는 말이 나오고, 그것이 남자의 경우 와 여자의 경우가 틀리기 때문인데, 알고 나면 별 건은 아니다. 그렇다고 방심은 하지마라!

우주는 확장 과 수축, 화이트홀 과 블랙홀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나는 처음에 역행 순행 의 개념이 언뜻 오지 않았다. 공부를 하던 중 우주의 확장과 수축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아니 무엇이 역행하고 순행한다는 말인가? 즉 대운을 적어가려면 , 그 출발점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출발선이 바로 (월주)이다. 이 월주를 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인데, 하나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니 '순행' 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뒤로 계속 후진하니 '역행' 이라고 하는 것이다.

조금은 혼란스럽다고 느낄 것이다. 다시금 정리하겠다.

대운을 적어 가는데 방법은 두 가지, 월주를 기점으로 해서 순행하는 방법 과 역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암기 바란다. 문제는 직진하느냐? 후진 하느냐? 하는 방향표시는 바로 <년간>으로 결정하는데, '년간' 의 음양이 '음' 이냐? '양' 이냐? 가 키워드 인 것이다.

이 이정표는 남자 여자에 따라

남자일 경우, '년간' 이 '양' 이면 순행하고 '음' 이면 역행한다.

여자일 경우, '년간' 이 '양' 이면 역행하고 '음' 이면 순행한다.

전회에서 예를 아기의 사주를 놓고 설명하면

시간	일간	월간	년간
戊	甲	己	乙
시지	일지	월지	년지
辰	子	丑	酉
<시주>	<일주>	<월주>	<년주>

이 아기가 '남자' 라면 '역행' 이냐 '순행' 이냐는 '년간' 의 '음양' 을 보고 결정하라 했으니, '년간' 이 '음' 이라 음양이 '음' 이다. 따라서 남자아이니 '역행' 이다. 대운 쓰기는 월주를 출발선이라 했으니 '월주' 가 '기축' 이므로 '역순' 으로 적는 것이다. '기축' 전에는 '무자' , '무자' 전에 '정해' , '정해' 전에 '병술' , '병술' 전에 '을유'

무자, 정해, 병술, 을유, 갑신, 계미, 임오, 신사, 이런 역순으로 8개정도 적는 것이다.

'여자아이' 라면 '역행' 이 아니고 '순행' 이다. 대운 쓰기는 '월주' 가 출발선이라 했으니 '월주' 가 '기축' 이므로 앞으로

적는 것이다. '기축' 다음에는 '경인' , '경인' 다음에는 '신묘' , '신묘' 다음에는 '임진' , '임진' 다음에는 '계사' , '계사' 다음에는 '갑오'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이런 순행으로 8개 정도 적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부언을 하고자 한다. 자석에서 같은 극이면 밀어내고 ,다른 극이면 서로 당긴다는 것은 초등하고 시절 자연시간에 실험을 많이 해 보았을 것이다. 보통 역학에서는 남자는 '건' '하늘' '양' 으로, 여자는 '곤' '땅' '음' 으로 음양을 구분한다. 남자는 '양' 이라 했으니 ,이정표인 '년간' 이 '양' 이면 같은 '양' 이니 서로 밀어내서 확장하니 '순행' 하고 , '음' 이면 다른 '음양' 이니 서로 잡아당겨 수축시키니 '역행' 한다는 이치가 얼마나 멋진 우주의 원리인가? 참으로 기막히다. 할 말이 없다. 그저 그 깊이에 두려움마저 느낀다. 옆길로 빠졌다.

각자가 자기 사주 기둥을 세워 놓았을 터이니, 지금 당장 써 보기를 바란다.

이것이 자기 생의 통괄적인 운의 플로우를 알 수 있는 밑그림이다.

대운 적는 법

대운은 위에서 적어둔 순으로 적는데, 사주 원국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었듯이, 위의 예에서 인용하면, 아래와 같이 적는다. 천간은 위 지지는 아래이다.

(정 병 을 갑 계 임 신 경)
(유 신 미 오 사 진 묘 인)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되도록이면 한자로 쓰기 바란다. 그리고 천간 과 지지를 한자로 연습을 하고, 육십갑자도 한번씩 써보기 바란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한자로 써야 제 맛이 난다.

대운의 입운 나이 계산하기

기본적인 개념 익히기도 이젠 막바지 이다. 어차피 넘어야 할 고개이다. 서울 근교의 웬만한 산을 등반하다보면 깔딱 고개라는 것이다. 산 정상을 앞두고 경사가 가파른 지형이 나오는데 정말 숨이 깔딱 깔딱한다. 주저앉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쉬다가 내려가고픈 욕망이 앞서지만 그래도 이것만 넘으면 하는 생각에 몸을 추슬린다. 여러분도 이제 깔딱고개에 와 있다. 힘을 내자.

무조건 누구나 다 대운이 시작하는 나이가 1살이 아니다. 이번 회에서 설명하려는 대운 입운 나이계산법을 알아야 몇 살부터 몇 살 까지라는 기간별 운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혼동 하지 말라! 전회에서 배웠던 역행 과 순행의 개념이 이 곳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운의 입운 즉 대운이 들어오는 나이를 계산하는 법을 설명 하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생일을 출발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달 즉 월의 개념이 12절기 라는 것이다. 음력 1월이라고 해서 ,만세력에 나와 있는 음력1월이 아니고 입춘이 들어오는 날 즉 절입 일시에서 다음 절기인 경칩이 들어오는 절입 일시까지가 음력 1월이라는 점이다. 다른 달 기준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세력이 필요하다.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순행이면 다음 절기가 시작 되는 절입 일시까지, 역행이면 해당 월이 시작 하였던 절입 일시까지 그 날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계산을 할 때에는 양력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것이 효과적 인데, 순행 할 때는 다음 절기 절입 일시에서 자기 생일 생시를 빼고, 역행 할 때는 자기 생일 생시에서 해당 월 절기의 절입 일시를 빼면 된다.

빼고 난 날짜 와 시간을 3으로 나누어서, 나온 몫 과 나머지를 가지고 대운 나이를 계산 하는데, 왜 3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이 해는 되지 않으나, 아마도 하늘 은 1이요, 땅은 2이요, 인간은 3이라는 사고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한 달은 30일이니 3으로 계산 하는 것인지? 추측만 할 뿐이다.

3일이 1년이라는 이야기이므로, 1일은 4개월이요. 1시간은 5일(120일 나누기 24시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운이 들어오는 시각을 몇 살, 몇 월, 며칠까지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며칠까지는 현실적으로 체감하기 어렵고, 몇 살 몇 월 정도까지는 통상적으로 계산해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사항 2가지를 꼭 암기하기를 바란다.

첫째 나누어서 나온 몫과 나머지가 있을 경우, 몫이 일단 대운이 들어오는 입운의 나이이므로 대운에 적용할 때에는 무조건 1살을 더해서 , 나열된 대운 중 , 맨 오른쪽에 있는 대운 간지 상단에 적어놓음 다음에 왼쪽으로 10살씩 더해서 계속 적어가면 된다.

둘째 기준은 자기 생일이므로 , 몫이 5 와 나머지 1일 5시간 이라면, 6살 되는 해 , 자기 생일을 기점으로 1일=4개월 에다 5시간= 5*5=25일, 4개월 25일 후에 대운이 들어온다는 뜻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지 아니하면 나이계산을 잘못 적용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대운 입운 나이가 5살로 이고, 생일이 11월이라면 ,대운 적용 나이는 6살에다 ,생일 기준으로 거의 5개월 후이니 해를 넘겨 7살이 되기 때문이다. 항시 대운의 적용 나이는 자기 생일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통상적으로 대운의 나이를 적을 때 6.6 소수점표시를 사용한다. 그 의미는 6살이 되는 해의 생일을 지나서 6개월부터 라는 뜻이다.

세운의 기준

대운은 사람각자마다 다르지만 세운은 누구나 다 똑 같다. 2006년이면 나도 병술년이고, 당신도 병술년이다. 그것이 일년운 즉 세운이다. 명리학의 묘미는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한다. 대운은 각기 틀리고 세운은 누구나 똑 같다. 물론 대운 과 세운이 똑 같으나 사주 원국이 틀리고, 설령 같은 운일지라도 남여가 틀리다. 같은 시대에 호흡하면서 똑 같은 운로를 걸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할 것이다. 쌍둥이 경우는 약간의 예외이겠지만... ..

세운은 우리가 쓰는 일년 기간을 이른다. 2006년은 병술년이다. 병술이 세운이 되는 것이다. 다만 세운의 시작에 대하여 ,사주기둥의 년주 세우기와 혼란을 일으키지 말기를 바란다.

세운의 시작을 명리학 내에서도 말이 많다. 동지를 기점으로 하느냐? 또는 입춘을 시작으로 하느냐 하는 공방인데, 나는 동지를 시작으로 한다는 설에 중심을 두고있다. 어떤 것을 시작으로 할 것인가는 각자가 알아서 취사선택을 할 것이지만, 옛부터 동짓날에 팔죽을 쑤어서 마당과 화장실에 한 그릇씩 담아 놓으시면서, 집안에 새해의 기운을 받는데 부정 타지 말라고 기원 하시던 어머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동짓날을 세운의 기점으로 생각하자.

즉 2006년의 병술년은 양력으로 2005년 동지인 12월 22일부터 시작 되었다는 의미이다.

대운 과 세운 관계

대운과 세운은 동시에 공존한다. 즉 대운 속에 세운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하여야 할까? 당연한 의문이다. 대운은 '여의' 로운 상황인데 세운이 '불여의' 라면, 도대체 어떻게 감정을 해서 판단을 할 것인가? 대운과 세운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 확실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꽃 피는 봄철에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여 보았는지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봄이면 햇살이 따사로우 언 땅에 묻혀 있던 싹들이 움트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온 몸이 노곤 노곤해지면서 졸음이 오는 춘곤증에 머리를 흔들기도 하는 계절이다. 이런 계절에 갑자기 진눈깨비가 내린다면 기온이 급강하하여 눈이 오기도 하는 날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다.

대운과 세운 관계를 이러한 예로써 설명 드리고자 한다. 대운은 즉 봄이라는 계절로 생각하고, 세운은 봄을 채우는 하루하루라고 생각하라는 뜻이다. 그런 각도에서 대운이 일단 '여의롭다' 고 감정 되었다면 그 기간은 '여의' 로운 때라고 간주하고, 세운이 '불여의' 로 감정되었다면 일단은 불여의한 일이 있을 것으로 감정하되 그 결과는 그리 '불여의' 하다고 감정하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진눈깨비가 왔다 할지라도 금방 봄의 햇살에 녹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이면 세심하게 경거망동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보내야 한다.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은 왔을 것이라 짐작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신강한 사람과 신약한 사람, 즉 팔자가 센 사람 과 팔자가 약한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신강한 사람은 대운의 영향이 크고, 신약한 사람은 신강한 사람보다 세운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 정설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운의 영향이 신강 신약 구분없이 세운의 영향보다는 크지만, 신약한 사주가 신강한 사주보다 세운의 영향이 더 작용하다는 뜻이다.

대운의 감정 기간에 대하여

대운은 10년 단위라고 설명하였다. 통상적으로 개두, 절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10년간의 간지 상태를 보고 감정하지만, 나는 경험상 천간과 지지를 구분 각각 5년씩 나누어 대입 감정하는 방법이 더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방법을 권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천간을 천간끼리 작용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작용하는 것이 논리상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운으로 오는 간지를 대운인 경우 천간을 전반 5년 지지를 후반 5년으로 분리해서 감정하고, 세운인 경우 현실적으로는 굳이 1년을 상반기 하반기라고 나누어서 감정할 정도의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감정하되, 일 년 기간 전체를 통하여 천간의 변화와 지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둔다.

서두에 언급된 개두, 절각을 설명하자면,

* 개두는 대운이던 세운이던 간지로 오기 마련인데, 이때 운으로 온 천간과 지지가 천간은 기구신 이고, 지지가 기구신 상태를 이룬다. 이럴 경우 지지의 희용신의 능력이 반감된다고 하는 것이고,

* 절각은 천간과 지지가 이번에는 반대로 천간이 희용신인데, 지지가 기구신 일 경우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천간의 희용신이 거의 힘을 쓸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개두와 절각이 있다는 것을 이해만 하여 주기를 바란다. 어느 정도 사주가 눈에 들어올 정도가 되면 자연히 감이 잡히는 부분이다. 시간을 소비할 부분은 아니다.

통변이란?

사주원국에 대한 의미를 읽어내고, 원국에 관련해서 대운과 세운이 일으키는 변화를 우리네 인간사로 번역하는 것을 통변이라 한다.

사주를 놓고 미래를 현재를 알아보거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영감이나神通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행의 생극 제화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그 암호를 해독하고 번역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주를 놓고 분석하고 추론 하여 정확한 감정을 하였다면, 그 감정은 시와 때에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한 감정이 된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감정을 하는 사람의 공부실력이 문제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같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TV의 모 방송국에서 방영되었던 프로인데, 한 여자 연기자를 초라하게 꾸며서 어느 철학원의 사주감정을 받게 한 후에, 며칠 후 다시 부티나게 변장시켜서 다시 감정을 받아보니, 사주감정을 정반대로 하더라는 내용의 프로였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아마도 그 감정을 했던 양반은 명리학이 아니라 다른 분야를 공부하였던 것이 아닐까? 하고 실소를 지어본다.

물론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제 본 것이 오늘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 깊이와 느낌이 다른 것뿐이지 영똥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타인의 사주를 감정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고나서 할 일이다.

자기사주조차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다. 다 경험 해 본 충고이니 귀담아 주시기 바란다.

차후에 나의 사주를 해부하면서 말하겠지만, 지금도 솔직히 나도 내 사주가 그리 선명하게 보이지 아니함을 시인한다. 사주가 생동하고 있는 것이 보여야 프로이다. 여러분을 아마추어로서 소양을 갖추어 주기위해 이 글을 연재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은 갖지 말기를 바란다.

통변을 이야기하다 또 옆길로 빠졌다. 통변은 표현인데 그 표현이 정확해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같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

혹시, 큰 북을 쳐 본 적이 있는가? 북채로 치면 소리가 난다. 세게 치면 큰 소리가, 약하게 치면 작은 소리가 난다. 북을 사주원국이라 생각하고, 북채를 운 즉 대운 세운이라고 간주하자. 북을 채로 치지 않았다면 아무 소리도 없이 먼지만 쌓이겠지만, 살아간다는 것은 북채로 북을 두드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강약도 뒤섞이면서 자기만의 리듬이 생기는데, 바로 그 리듬을 인간사 용어로 읽어내는 것이 통변인 것이다.

더욱이 통변할 때는 극도의 집중과 사변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 북 위에 모래나 콩 같은 가는 물체를 올려놓고 북을 쳐 보면, 모래나 콩이 진동에 의해서 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튀는 모양이 제각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사주원국의 여덟 자가 제각기 튀다고 상상을 해보라. 어떤 느낌이 올 것인지? 그것이 통변이다.

우선은 통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십성이다. 십성을 통변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십성이라 하여 모든 것을 통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말기 바란다. 나는 무리하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나의 공부 와 실력이 아직까지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함이겠지만, 일단은 느낌 과 감 만 잡는 것으로 족할 뿐이다.

알아두면 유용한 통변 사항

*천간에서 운에서 오는 오행과 합이 생길 경우, 원국에서 합화가 이루어진 상황 이었다면 합화가 되는 것으로 통변하고, 그 이외에는 합이 되어 묶이는 것으로 통변하여 활동이 제한 받는 것으로 감정한다.

*운이 오는 경우, 천간 과 지지를 구분하되, 천간은 음양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다만 양은 정신적인 측면이 강하게, 음은 물질적인 측면이 강하게 구현된다는 정도만 이해하기 바란다.

지지는 음이면 급한 변화는 느낄 수 없으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 시간이 걸리고, 양이면 현실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단시간 내에 일어난다고 분석한다.

*삼합의 경우, 원국에 삼합의 본기가 있어야, 운에서 삼합이 되는 오행이 올 경우, 제대로 삼합의 국이 이루어진다고 감정한다.

*극이나 충의 경우, 극이나 충을 당하는 오행만 보지 말고, 원국의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극이나 충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원국의 상황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야 한다. 극이나 충을 당하는 입장의 오행이 오히려 역으로 극이나 충을 하는 '회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왕신을 건드렸다고 하는 표현이다.

*지지 토의 경우, 토의 지장간을 잘 살펴야 한다. 제일 까다로운 오행이다.

*시험의 합격여부는 대운보다는 세운으로 판단한다. 청득진이라고 한다.

*합이 많으면 정이 많고, 충이 많으면 한이 많다.

*사업운은 최소한 10년 대운이 연속적으로 있어야한다.

*목이 없는 화는 그다지 강하지 아니하다.

*일주가 갑신, 무인 일 경우, 신약하다면 살인상생격이다.

*일간의 합은 큰 큰 뜻을 잃게 하고, 용신의 합은 기반이라 하여 성공을 돕지 아니 한다고 감정한다.

*사주원국에 합이나 충이 있는데, 운에서 그 합이나 충을 깨는 오행이 오면, 원국의 합이나 충은 깨진 것으로 분석한다.

*통상적으로 20세까지는 운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정하는데,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의 운에 따른다고 본다.

*운이 와서 변화를 일으킬 경우, 변화하는 오행에 따라 천간 또는 지지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 다른 간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운과 원국의 상황을 계속 살펴야 한다.

*남자의 경우, 부인을 재성으로 보는데, 사주원국에 재성이 없는 경우, 희신을 부인으로 본다.
자식은 관성으로 보는데, 관성이 없는 경우, 용신을 자식으로 본다.

*여자의 경우, 남편을 관성으로 보는데, 사주원국에 관성이 없는 경우, 용신을 남편으로 본다.
자식은 식상으로 보는데, 식상이 없는 경우, 희신을 자식으로 본다.

자기 그릇의 크기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태어난 것 같지만, 실은 제각기 갖고 태어나는 그릇의 크기와 질이 다르다. 다양한 크기와 질에 의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완전하고 완벽한 그릇은 없다.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고 신 일 것이다. 서로의 모자람을 통하여 서로 보완하고 보충함으로써 전체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찌면 인간이라는 개체의 숙명이 아닐까? 누구나 재벌총수가 되고 싶겠지만, 누구나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이 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바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의 몫이다. 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목욕재개하고 작심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하늘 아래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이 없건만 태산만 높다 하더라’ 또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등, 참으로 근사한 말로 사람병신 만드는 것도 순간이다. 모 대통령 당시 모든 공공기관의 벽에 액자가 걸릴만한 곳에는 ‘하면 된다’ 라는 글씨가 도배를 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면 개뿔이 되는가? 우리들은 이런 가당치 않은 유혹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뇌교육을 받아왔고, 받는 중이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안 되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야 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좌절이나 실패해서 실의에 빠져있는 경우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총체적인 중지를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을 경우 선동적인 캐치플레이즈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는 이야기는 아니다. 진정한 활력소가 되고, 이를 계기로 해서 다시 재도전한다는 동기부여는 참으로 바람직한 이야기지만, 남들은 잘 하고 있는데 자기만 못하고 뒤떨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열등감 내지 자기비하의 포로가 되도록 유혹하는 무의식적 환경 속에서 가쁜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나? 하는 의구심은 죄책감까지 동반하여, 사람을 무리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다. ‘능력 없는 자의 분노는 자기파괴라고 했던가?’ 운명론에서 현재란 과거 선악의 결과가 아니라 인과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인과-원인과 결과-에 무리수가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무리는 무리를 낳기 마련이고, 운이 불여의 할 때 무리라는 원인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왜 무리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의 그릇 크기와 질을, 그리고 시기와 때에 따라 자기 그릇에 채워지는 만족의 량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느 인생이고 헛되고 값싸고 홀대를 받아야하는 삶은 하나도 없다. 삶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며 소중한 것이다. 단 한번 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한 판의 인생이다.’ 지천명 불원천 이요 지기자 불원인 이란 말이 있다. 명리학을 공부한다면 이 정도는 한자로 외우자.

知天命 不怨天, 知己者 不怨人
 자기의 운명을 알면 하늘을 원망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알면 남을 원망치 아니한다.

잔소리가 길어졌다. 그러면 그릇의 크기를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통상적인 방법은 용신의 품질, 즉 용신이 있는 위치와 상황으로 그 등급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이른 편이니, 차후에 하기로 한다.
 나는 등급단위로 크게 둘로 나누어서 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방법과 별 차이는 없으나, 시기와 때에 따라서 채워지는 량을 가능해보자하는 의도에서 생각해 보았다.

하나는 용신의 품질과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대중소하는 큰 분류를 하고, 다시 대분류된 대중소를 각기 다시 대중소 단위로 세분류하여 9 등급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X 축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대운과 세운의 등급으로 상중하로 큰 분류로 ,다시 이를 상중하로 세분류하여 9단계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Y 축으로 한다.

굳이 등급갯수를 이룬다면 81개로 구분된다. 물론 이것은 이론상 전개이고 현실적으로 큰 분류 9등급으로 그릇의 크기를 가능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알면 무리라는 욕심이 자제되고, 자기 그릇에 맞게 만족 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다시 없는 한판의 인생이다. 이왕이면 즐겁게 충실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능력이 미치지 않는 자의 분노는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커피 타임

커피 한 잔 마시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그리 깊이는 없지만 명리학을 위한 용어에 대하여 기초개념들을 나름대로 소개 해 보았다. 물론 그 밖에도 수없이 많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명리학을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경험상 알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 광맥을 찾아나서야 할 때이다. 혹시 처음보시거나 중간부터 보신 분이라면 다시 처음부터 차분히 검토하기를 바란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명리학은 수학 공부하는 것이라 말씀드렸다. 늦더라도 하나하나씩 확실하게 이해하고 여기 까지 와야 한다. 시간과 자기사색을 투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문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데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느낌이다. 감 이다. 그 이유는 어떤 변화를 있다면 그 변화가 영화 스크린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자니 처음에 배울 때 그러한 감을 느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사실 막연하다. 그러나 실망 하지마라, 멀리서 구하려 하지 말고, 자신 자신의 사주를 이용하라. 이 보다 확실한 자료는 없다. 자기의 사주를 분석하다보면 때로는 주관적으로 때로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다보면 딱히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각자가 얻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남이 해주는 말이야 어찌보면 구름 잡듯이 넘어 가는 것 같아 이어령 비어령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다. 나는 그러한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 사실 사주 여덟 자를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라, 내가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아무리 해도 자기 자신의 사주보다 정확하고 생생한 사주는 없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알기 시작했다고 해서 절대 함부로 남을 감정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무엇보다도 듣는 사람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는 알고있는 대로 이야기하지만 듣는 사람입장에서는 태풍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적으로 활용할 정도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학문이다. 왜냐하면 인간사 문제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많은 것을 암기하고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컴퓨터만큼 하겠는가? 그러나 나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불만 이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헛갈리기만 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런 것이 신뢰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공부 한다는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이야기이니 곡해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나의 사주에 인성이 없어 직관력이 부족한 탓이라, 그저 많이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터득한 것을 정리하는 재주뿐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연재도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짜증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천성 이리 하니 그냥 눈감아 주기를 바란다.

다음회 부터 사주가 등장하는데, 남의 사주가 아니고 나의 사주를 공부재료로 내 놓겠다. 잘나서가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으로써 과연 명리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기위함이니, 그 동안 공부한 것을 상기하면서 스스로 응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사주팔자 란 무엇인가 -왕초보편 하나-

블로그 法泉宇 <http://blog.daum.net/polaphic>

저자 법천우

발행일 2011.10.02 18:13:15

 블로그